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인 려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뷰티관심도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태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뷰티관심도에 관한 연구

최 인 려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태 미

# 인 준 서

김태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특성 및 뷰티관심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며,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와 섬유선호도 및 세탁법을 조사하고, 다문화가정의 국가와 한국가정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어와 5개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지법과 면접법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설문지는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를 5단계 리커트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와 섬유선호도 및 세탁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성인 254명과 청소년 135명, 한국가정의 성인 161명과 청소년 101명이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chi^2$ ,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성인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 의복행동특성, 뷰티관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필리핀인이 가장 높았다. 친구관계만족도는 한국인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인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

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은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복의 동조는 베트남인이 가장 높았고 한국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뷰티 관심도는 필리핀인과 중국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중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필리핀가정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뷰티관심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베트남가정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뷰티관심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만족도와 교사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주변관계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신체만족도는 의복동조행동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보다 신체만족도,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성인보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의복의 종류에 따른 사용실태와 선호섬유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의복종류에 따른 바지소유개수는 모든 국가가 비슷한 개수의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내의, 블라우스(셔츠), 스커트, 재킷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으며, 블라우스는 필리핀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다. 스커트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으며 재킷은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다.

의복종류에 따른 선호섬유는 내의는 모든 국가가 면섬유를 선호하였으나,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베트남인은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혼방섬유 선

호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인, 필리핀인은 블라우스(셔츠)의 면섬유를 선호하였으나 한국인은 마, 모, 실크의 천연섬유를 선호하였고, 바지, 스커트, 재킷은 면 외의 천연섬유(마, 모, 실크)와 혼방섬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종류에 따른 선호섬유 선택이유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는 중국인의 건강이유가 가장 높았고, 블라우스(셔츠), 스커트, 재킷은 베트남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바지는 필리핀인의 세탁성 이유가 가장 높았다.

의복의 종류에 따른 연간 구매빈도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의류구매를 자주 하지 않으며, 필리핀인은 의복의 구매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종류에 따른 1회 평균 구매비용은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필리핀인과 베트남인은 모든 의류를 1~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재킷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 청바지 소유개수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가정 청소년 보다 새 옷이 자주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세탁방법은 두 집단 모두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세탁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나타났다지만, 한국가정은 65.2%가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은 세탁법의 67.7%가 가정에서 가정용 세탁기만을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의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의복행동의 특성과 뷰티관심도 및 섬유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의생활에 맞는 상대적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한국의 패션산업이 발전된 다문화적 의류시장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6
1.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가정의 정의	6
2. 한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현황	9
3.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17
4.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20
5. 가족·교사·친구관계와 의복행동	23
6. 의복행동	26
7. 뷰티관심도	29
III. 연구 방법	32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32
2. 측정도구	36
3. 조사방법	47
4. 분석방법	49

IV. 연구결과 및 논의 .....	51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성인 구성원에 대한 고찰 .....	51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고찰 .....	89
3.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고찰 .....	118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 섬유선호 도 및 세탁방법에 대한 고찰 .....	125
V. 결론 .....	13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국제결혼이민자현황 .....	10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10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11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각 학교급별 인원 .....	11
〈표 5〉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출신국별 현황 .....	12
〈표 6〉 이주민가정 자녀의 각 학교급별 인원 .....	13
〈표 7〉 초·중·고 재학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 .....	13
〈표 8〉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	19
〈표 9〉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	22
〈표 10〉 뷰티관심도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11〉 성인용 설문지의 구성 .....	37
〈표 12〉 청소년용 설문지의 구성 .....	38
〈표 1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39
〈표 14〉 신체만족도 측정도구 .....	40
〈표 15〉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측정도구 .....	41
〈표 16〉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측정도구 .....	42
〈표 17〉 의복행동 측정도구 .....	43
〈표 18〉 뷰티관심도 측정도구.....	44
〈표 19〉 의복종류별 사용 실태와 섬유선호도 문항.....	46
〈표 20〉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가별 특성 .....	51
〈표 21〉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3

<표 22>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5
<표 23>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가소속감 .....	57
<표 2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이민의사와 이민이 유 .....	58
<표 25>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 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60
<표 26>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 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62
<표 2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 .....	65
<표 2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 .....	66
<표 29>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 도.....	68
<표 3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 .....	69
.....	69
<표 3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 .... .....	71
<표 3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신 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3
<표 3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가 족·친구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74

<표 3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75
<표 3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77
<표 3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	79
<표 3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유무에 따른 이유.....	86
<표 3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와 외모모방 대상.....	87
<표 39>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부모출신국가의 비율.....	89
<표 40>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1
<표 41> 한국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92
<표 42>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국가소속감 .....	93
<표 4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이민의사와 이민이유 .....	94
<표 4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96
<표 45>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97

<표 4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	98
<표 4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	100
<표 4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교사·친구 관계만족도 .....	101
<표 49> 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 .....	102
<표 5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 .....	103
<표 5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04
<표 5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5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107
<표 5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교사·친구 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108
<표 5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110
<표 5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 유무 에 따른 이유.....	114

<표 5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와 외모모방 대상 .....	116
<표 58>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	118
<표 59>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	119
<표 60>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 도.....	120
<표 61>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	122
<표 62>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 ..	123
<표 63>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소유개수 .....	125
<표 64> 청소년의 청바지 소유개수 .....	126
<표 65>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선호섬유 .....	127
<표 66>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선호섬유에 대한 이유.....	129
<표 67>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연간 구매빈도.....	131
<표 68>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 .....	133
<표 69>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1회 평균구매비용.....	134
<표 70> 조사대상자의 세탁방법 .....	136

## 그림 목 차

<그림 1> 성인의 연구모형 .....	34
<그림 2> 청소년의 연구모형.....	35
<그림 3>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 연구모형.....	35
<그림 4>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가별 구성 .....	52
<그림 5> 중국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80
<그림 6> 필리핀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81
<그림 7> 베트남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82
<그림 8> 다문화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83
<그림 9> 한국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84
<그림 10>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부모출신국가의 분포 .....	90
<그림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111
<그림 12> 한국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	113

## I. 서론

전통적 단일 문화 사회인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인종,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으로 국가 간의 노동력 교류로 인한 국내외 인구의 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로 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은 결혼이주여성의 대거 유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이미 유네스코와 OECD가 지정한 다문화국가이자, 이민국가이며, 한국사회는 국내거주 외국인 110만명을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이동영, 2009).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9,507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급증하여 2009년에는 1,000,000명을 넘었으며, 2009년 5월 110만(1,106,884)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자료, 2009).

2000년대에 들어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 이주민,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사회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90년에 인구구성비 0.11%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6년에는 1.88%로 17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에는 전년도보다 25%가 상승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167,090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하였다(행정

안전부, 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한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이전까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적 없던 한국사회에 큰 변화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맞는 연구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초기의 이주한 다문화가정 2세들이 10대로 성장하여 곧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기임을 생각할 때 이들의 수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통한 발전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주자가 본 이주정책(한건수, 2005), 외국인 이주의 적응과정 개관과 특성에 관한 연구(이경자, 의미미, 2008),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김유경, 2009)과 같은 이주정책과 실태에 관한 것이 있으며,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의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연구(김민정, 2006),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남인숙, 장훈성, 2009),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김이신, 김민정, 한건수, 2006)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주 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쟁점에 관한연구(배은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교육을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활용한 연구 (한건수, 2005), 다문

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김민정, 2008)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한국의 외국인 구성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2005년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와 그 산하 기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주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실태 및 문제점의 파악에 대한 연구와 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주의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뜻하며, 생활양식은 의식주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국내의 인종 집단과 타국의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인종, 문화, 문명, 가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현대사회의 다문화 공존을 위한 중요 원리의 하나로 꼽았다(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2009). 즉, 여러 나라의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문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식주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로는 2009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10개 국어의 설문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와 김정미, 이난희(2009)의 대구지역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국내의 다문화가정의 의복생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복생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의복생활의 실태와 의복종류별 선호섬유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가족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의 조사결과를 통해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와의 인과관계를 한국가정 구성원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의생활에 대한 실태분석과 의복행동의 특징 분석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에 기여하며, 다문화가정의 의생활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변인들의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한국가정 구성원의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 특성의 차이와 유의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별 소유개수, 구입빈도, 구입가격에 따른 사용실태와 섬유선호도와 세탁방법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적 의복생활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구성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가

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구성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에 따른 의복구매실태와 섬유선호도 및 세탁방법을 알아본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가정의 정의

####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많을 다(多)’ 자에 ‘문화(文化)’ 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 을 뜻하며,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두산대백과사전).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박병섭, 2009).

다문화주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960년대 들어 소수집단의 이해를 정치적 영역에서 보다 중요하게 부각시킨 차이의 정치학, 정체성의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출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Phillips, 2007).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그 철학적 기반, 정의, 정책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좁은 의미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일컬어지며, 세계화의 진전이나 ‘이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한경구, 2008).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인 호주, 미국 등이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인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9).

한국 사회는 단일한 민족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통해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 존재하게 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다문화주의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적 현상은 정책적 방법 뿐 아니라 정서와 가치관에 따른 실질적 생활양식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를 통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정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일컬으나, 김갑성(2006)은 다문화가정을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설동훈(2006)은 다문화 가족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50년 한국전쟁이후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 1990년대 후반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그 주된 형태이다. 정책적인 다문화가정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며, 그 정책 대상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 산하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민 가정 모두를 말하며, 국제결혼가정에는 한국인 남성과 이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 여성과 이주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이주민 가정에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 가족의 범주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패션산업의 소비자로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범주를 국제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인근로이민자와 외국인근로이민가정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가정의 자녀로 확대해석하여 정의하였다.

## 2. 한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현황

### 1) 다문화가정 현황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가정과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가정이 그 주된 형태이나,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과 최근 급격히 증가한 유학생도 그 범주에 넣기도 한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 2009)

2009년 5월 1일 집계에 의하면 국내거주 외국인은 110만 (1,106,884)명을 넘어섰다. 그 유형별 비율은 52%가 외국인 근로자(575,657명)이며 결혼이민자가 11.4% (125,673명), 외국인 주민 자녀가 9.7% (107,689), 유학생이 7%(77,322명) 등이다. 이들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624,994명(56.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로 21.2%여명, 미국이 5.4%, 남부아시아가 3.9%, 일본2.4%, 대만 2.1%, 몽골2.1%, 중앙아시아 1.8%의 순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2009)

그 중 결혼이민자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09. 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2008년도(144,385)에 비해 13.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 13.7% 증가한 수준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제결혼이민자현황 (2009. 5. 행정안전부)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103,484	52,842	50,642

<표 2>는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으로 그 국적별 비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의 순서로 그 주요 국가는 중국(조선족포함), 베트남, 필리핀이다.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2009. 5. 행정안전부)

구분	계	중국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계	167,090 (100%)	53,754 (32.2)	48,698 (29.2)	30,779 (18.4)	9,799 (5.9)	5,364 (3.2)	2,503 (1.5)	2,242 (1.3)	517 (0.3)	13,434

## 2)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며, 그에 대한 연령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2009년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0만(103,484)명이 넘으며, 그 중 6세미만이 59.6%(61,700명)로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4배에 달하며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2009. 5. 행정안전부)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03,484명	61,700명	27,568명	7,785명	6,431명
비 율	100%	59.6%	26.7%	7.5%	6.2%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교과부 '08.6월)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8,778명으로 '07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각 학교급별 비율은 초 84.2%, 중 11.7%, 고 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지역별 비율은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이며, 국제결혼가정의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이다. 특히,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2%(16,03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각 학교급별 인원(2008. 4.1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표 5>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출신국별 현황 (2008. 4.1 기준)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명)													
	일본	중국 (조선 족)	미국	필리핀	베트 남	태국	러시 아	몽골	인도 네시 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기타	계
서울	1031	501	59	230	73	34	35	71	28	45	18	29	105	2,259
부산	266	207	14	110	33	7	43	0	20	15	8	12	35	770
대구	184	108	11	65	22	11	4	0	1	9	0	11	30	456
인천	223	198	6	115	31	8	7	18	9	8	5	7	27	662
광주	212	98	1	85	24	6	1	4	0	0	0	0	8	439
대전	162	49	18	35	20	4	10	3	4	0	4	2	16	327
울산	109	48	1	46	39	2	0	1	0	1	3	3	11	264
경기	1825	763	50	566	146	78	56	83	32	69	49	26	135	3,878
강원	466	261	7	183	32	21	10	3	0	1	4	4	13	1,005
충북	418	291	6	157	44	18	4	17	1	3	3	10	22	994
충남	628	465	11	214	76	19	7	5	1	17	8	8	17	1,476
전북	563	403	1	331	33	16	5	4	6	3	5	2	12	1,384
전남	827	405	2	428	121	37	3	7	6	2	5	2	24	1,869
경북	499	422	15	186	95	25	6	0	15	7	2	1	19	1,292
경남	796	345	10	234	67	24	11	-	2	6	8	6	21	1,530
제주	84	30	4	24	8	1	2	0	1	2	2	2	13	173
합계	8,293	4,594	216	3,009	864	311	204	216	126	188	124	125	508	18,778
비율 (%)	44.2	24.5	1.1	16.0	4.6	1.7	1.0	1.1	0.7	1.0	0.7	0.7	2.7	100.0

<표 6>은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자녀의 현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402명으로 2007년 대비 15.9%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 비율은 초 70.0%, 중 22.4%, 고 7.6%이다. 지역별비율은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이고,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부모국적별 비율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이며,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현황과약이 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

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6> 이주민가정 자녀의 각 학교급별 인원(2008. 4.1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표 7> 초·중·고 재학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2008. 4.1 기준)

시도	부 모 국 적 별 (명)													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서울	95	102	15	20	14	5	8	217	3	7	12	3	34	535
부산	1	4	4	-	-	-	3	1	1	2	1	-	4	21
대구	4	9	2	2	-	1	-	-	1	9	1	2	2	33
인천	-	6	1	-	-	-	-	8	2	-	-	-	4	21
광주	2	-	-	-	-	-	1	-	-	-	-	-	2	8
대전	14	7	-	2	1	1	3	2					7	44
울산	1	3	-	1	-	-	-	1					1	8
경기	85	69	8	37	8	-	18	129	1	22	20	5	27	429
강원	4	8	2	4	2								2	24
충북	1	19	2	-	-	-	-	-					-	22
충남	1	4	1	-	1	-	-	4					2	21
전북	39	35	1	29	3	1	-	1	-	-	2	-	1	112
전남	-	1	-	-	-	-	-	-	-	-	-	-	-	1
경북	-	4	2	1	1	-	-	1	-	2	-	-	-	11
경남	59	13	1	15	-	2	1	4	-	1	3	3	6	108
제주	2	-	1	-	-	-	-	-	-	-	-	-	1	4
계	308	284	40	111	30	10	34	368	8	43	39	13	93	1,402
비율	22.0	20.3	2.9	7.9	2.1	0.7	2.4	26.2	0.6	3.1	2.8	0.9	6.6	100

### 3)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한국사회는 일간신문의 지면광고, 기사, TV광고, TV프로그램, 라디오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메시지와 언론사, 기업의 다문화 관련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부터 3차년도에 걸친 다문화·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2006)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과 국제여성총연맹이 주관하는 다문화 가족정책 세미나(2009)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시는 교육청은 다문화 지정학교를 정하여 시범연구와 운영보고를 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유용식, 손호중, 2009)와 같은 정책에 대한 연구와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듯 2005년 이후 집중된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공통된 문화적 배경의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에 급속한 속도로 다문화사회화로 진전되었으며, 그로인해 연구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영분, 이유경(2009)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가 자아분화 중 대인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변미희, 강기정(2010)은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과 다문화 수용태도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주에 대한 적응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남인수, 장훈성(2009)의

결혼이민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에 대한 연구와 오종진(2009)의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에 관한 연구, 양순미(2006)의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실태에 대한 연구와 이주형태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이주와 적응실태(권혁민, 2007), 결혼이주자의 이주와 적응실태(윤미령, 2007),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와 적응(박은경, 김민열, 2007), 외국인의 이주와 적응과정(이경자, 이의미, 2007)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기연(2007)의 베트남 여성결혼 이민자가 다른 나라 결혼 이민자들에 비해 낮은 학력과 한국교육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정보부족, 언어습득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권유경, 정여주(2009)은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조희진, 양다진, 김세리, 이남희(201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무영, 강기정(2007)도 국제결혼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에 의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정미, 이난희(2009)는 대구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분석을 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서중남(2010)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한국어 부족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가정내 불안 갈등문제에 대해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교육, 취업교육을 제안하고 이들 자녀의 학교에서의 편견과 따돌림으로 인한 교우관계문제와 학교부적응, 정체성혼란문

제를 국제경쟁력 강화와 다문화 교육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하였다. 김민정(2008)의 이주노동자아버지와 한국인어머니로 이루어진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의 성장을 외모적인 특성을 가지는 ‘혼혈’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외모와 젠더에 대해 설명하였고, 임종욱(2010)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종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심우엽(2009)은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다문화 아동과 한국가정 아동의 민족정체성 차원에서 심층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은 노동, 결혼, 유학, 외국인의 이주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원은 자아존중감 고취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들이 갖는 문화적 차이와 외모적 특징에 대한 가족,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의 다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아존중감 (Self-Esteem)과 의복행동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하는 (Rosenberg, 1979)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구성요소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강혜원, 1999). 이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생활적응 및 자아실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남행웅, 이병관, 이호열, 2009). Branden(1990)은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이 욕구의 충족여부는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평가를 뜻하며 그것은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자신을 능력 및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 라고 하였다.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아 목표추구, 사랑체험, 자기필요 존재인식, 자기유한성 인식, 만족감, 관계경험, 긍정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김현지, 이영환(1999)의 연구에서 정서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생의 의미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이 발달 프로그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에 대한 연구로는 한상숙, 김경미

(2006)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울,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학교생활 적응, 신체상, 가정화목도 이라는 보고한 연구결과와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육영숙, 2008), 남녀 프리틴 세대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양적 영향을 미친다(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는 연구결과가 있다. 박은희(2008)는 초등학생 5~6학년의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에 대한 보고는 신체적 자아가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상호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된다.

자아존중감은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김양진, 강혜원.(1992)은 외모(신체, 의복)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문혜경, 유태순(2003)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성과 흥미성을 더 추구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의복의 동조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김민정 외 7인(2004)은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타인의 평가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은정, 정명선(2010)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미실과 이금실(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김양진, 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지, 이영환.(1999)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혜경, 유태순.(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
김민정 외 7인 (2004)	여대생의 외모에 대해 타인 평가와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 행동 영향 요인 연구(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 중심)
한상숙,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미실, 이금실.(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은희. (2008)	초등학생 5~6학년의 주관적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육영숙, (2008)	여대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2009)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남행웅, 이병관, 이호열, (2009)	한국무용 참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은정, 정명선(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애와 자기 효능감 뿐 아니라 생의 의미와 안녕에도 영향을 주는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이를 향상, 유지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의복행동이 이루어지므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 4.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신체적 자아란 신체로서의 자아 또는 지각된 자아의 물질적 특징을 의미(강혜원, 1999)이며,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이야기하며,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체의 모양과 구조, 기능을 포함한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Cash, 1990)하는 것으로, 외모와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며, 의복은 신체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며 의식하게 만들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Thompson & Heinberg, 1999)

외모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변모하나, 현대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일컬을 만큼 외모에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 그 관심 또한 매우 크다. 신체적인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성별, 인종, 나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일상생활중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므로(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명희, 2003)은 사회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타인을 의식하여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심리적 믿음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이현옥, 구양숙, 2009).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의 일부로 의복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고(이미숙, 2007), 이에 대한 결함을 극복하는 데는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아끼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여성의 신체만족도가 의복의 성적매력성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고(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의 성적 매력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타인 외모에 대한 욕구, 가치, 동조의식이 높으며, 의복의 단정한 면을 강조(이은희, 2007)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의 성적매력을 추구하는 의복행동을 하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외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종순(2008)은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의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유광욱, 원유병(2009)은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통한 외모, 근력 등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향상이 교사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장선철, 송미현(200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얼굴, 상반신, 하반신, 신체전신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정성이 높아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긍정적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주변관계도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정경숙, 서경현(2002)은 신체의 비만도의 기준인 BMI(신체질량지수)가 낮은 여대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신체에 만족하며 이것이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9>와 같으며, 신체와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러가지 의복행동에 영향을 준다.

<표 9>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이미숙, (200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이종순.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 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
유광욱, 원유병. (2009)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참여 형태에 따른 신체 너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이현옥, 구양숙, (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 5. 가족·교사·친구관계와 의복행동

개인의 행동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 환경으로는 가정 환경, 주변사회환경, 학교환경 등이 있다. 이들 환경 중에 가정환경은 개인이 출생한 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개인의 습관, 태도, 생활양식 등의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곳으로, 성인이 되면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 환경은 주변사회와 학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하나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적응 혹은 문화 변용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접촉은 두 문화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그 후에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서 문화적응이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일어난다(Berry, Poortinga, Segall, Dasen, 1992).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적응과정이 가정내와 주변관계에서 나타나진다고 볼수 있다고 하겠다. 적응 유연성 혹은 탄력성의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적인 요인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민족정체감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가족적인 요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 가족의 문화적 강점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 강화, 외부 환경적인 지원은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Hopps, Tourse & Christian, 2002, 이창호, 2009, 재인용)

가족·교사·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상담원(2006)는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에서 주변사람과의 관

계를 아버지, 어머니, 한국인친구, 혼혈인친구, 이웃으로 보았으며, 윤미령(2009)는 결혼이주자의 적응과정을 가정적응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응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김민정(2008)은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요인을 가족과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 자아상과 민족정체감을 통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개인적요인, 가족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와 가족문화의 강점인식을 통한 자부심 강화의 가족적요인,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환경적인 요인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소외, 낮은 경제적 지위로부터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하고 있다(Hopps, Tourse & Christian, 2002, 이창호, 2009, 재인용).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맞는 각종 지원과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며 그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년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와 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문화와 다른 이들과 살아가며 문화적 경계를 넘은 일종의 노마드라 할 수 있으며(한상준, 2008) 이들에게 가족,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관계는 인간의 소속한 가정, 학교, 사회집단속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있어서의 가족은 이전의 가족과 단절되어 많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지 못한 배우자만을 의지한 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이영분, 이유경, 2009). 노동이주자 역시 경제적 활동을 위해 이전의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생활하여야 하므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가족은 깊은 애착을 가진 관계라고 보여진다.

이명희(2009)는 청소년의 외모관심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모관심은 상류층과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나며, 외모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 일반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일반생활, 총생활만족도가 높고,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에 외모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박수향, 이해주(2009)는 여성의 직장생활에 있어, 입사시 첫인상을 좌우하는 외모관리의 중요성과 직장생활시 여성의 외모가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있어 성격과 사회성과 함께 외모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옥란, 박주현(2009)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 따른 외모관심도가 사교,경제집단에서 헤어관리, 성형관리, 의복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자신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주변관계의 만족도로 나타나지며 이는 의복행동과 외모관리, 뷰티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다.

## 6.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선호, 그리고 착용습관 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Horn & Gurel, 1981). 의복행동은 인간행동의 하나로서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 관심, 선택 및 사용 등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은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신체의 연장으로서 외모의 한 부분으로 외모평가와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한상준 외, 2000)

강경자, 서영숙(1992)은 Maslow의 기본욕구에서 의복의 동조에 미치는 욕구는 자기존중, 소속, 안전요구, 자아실현, 미의 순이며,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는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인지, 소속의 순이라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집단규범의 옷을 중시한다고 하고, 패션정보에 대한 접촉도가 낮고 수입수준이 낮을수록 의복동조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정미실, 강혜원(1991)은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정보에 더욱 많이 동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의 차원이 브랜드의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대근, 김세희(2010)는 소비자 동조성에서 패션성향에 대한 경로에서 규범적 동조는 패션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보적 동조만이 영향을 주며(박혜정, 전경숙, 2004), 일반적 동조성향과 패션동조 행동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전대근, 이은영, 2006)는 의복의 동조가 단순히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와

선호라기보다는 정보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 의복과시성이 크게 나타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송경자, 이미숙 2009) 전용민, 이명희(2005)는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신체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태도의 요인을 연예인의 복동조, 심미성, 유행으로 보았으며, 물질주의가 의복태도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의존성, 동조성의 4가지 요인으로 보았으며,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변인의 설명력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해서 가장 높았으며, 동조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맹리선, 채진미, 오경화(2009)는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욕구를 동조, 개성, 인정, 이미지 관리의 4개 요인으로 보았으며, 청소년들의 이미지 관리와 또래집단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수록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며, 이경남, 이인자(1986)은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의복의 동조성이 크게 나타나고,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황선진, 남궁유선, 이종남(1998)는 청소년의 사회적 범주 집단중 범생이 집단은 유행에 무관심, 단정함과 평범, 신체적 안락감을 중시하며, 평민집단은 유행질충, 동조성을 중요시 여기는 의복행동을 하며, 개성과 집단은 개성추구, 합리성을 중시여기는 의복행동을 하고, 날나리 집단은 유행추구와 성인 지향적 의복을 중시여기는 의복행동을 하여 청소년이 또래집단의 가시적 구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의복

스타일을 가진 집단적 의복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송경자(2009)는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고 동조성, 과시성도 높으며,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며, 또래동조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쳐 비행과 집단따돌림을 유발하기도 하며 의복의 동조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전주연 외, 2004). 김나연, 이기춘(2001)은 청소년 소비자의 의류구매에 있어 상표 선택시 동조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친구와 대중스타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동조적 성향도 나타났다.

개인의 관심과 선호,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의복행동은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관인 외부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의 소속과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 7. 뷰티관심도

뷰티관심도란 ‘뷰티’와 ‘관심’, ‘도’의 합성어로 ‘뷰티’의 미(美)라는 뜻이 현재 패션뷰티업계와 사회 전반에서 머리와 얼굴, 손·발톱 등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위 등에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가꾸는 것과 이러한 뷰티산업에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한다(설현진, 2009). 즉, 얼굴이나 머리를 매만짐, 용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교학사, 2008)으로, 외모관심도에서 파생되었다고 볼수 있고,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관련된 것으로 외모는 신체적 특성, 체격, 얼굴, 의복, 화장, 악세사리, 건강상태, 체취를 포함하며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성형수술을 통해 원하는 얼굴로 형태를 바꾸는 등의 적극적인 외모 관리도 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얼굴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며,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징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상으로 사람의 전체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Hassion & Trope, 2000).

최수경(2007)은 Maslow의 7가지 욕구변인 중 생리적인 욕구는 화장의 동조성과 개성에 상관관계를 가지며, 안전욕구과 소속욕구, 인지욕구는 화장의 유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과시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존중욕구와 자아실현욕구, 미욕구는 화장의 도구성, 유

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개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행동이 미의 욕구 뿐 아니라 그 밖의 심리적 욕구 특성과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경숙, 서경현(2002)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여대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뷰티에 대한 관심이 외모향상을 위한 관리노력과 뷰티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심리적인 욕구의 충족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현진, 최인려(2010)는 여성청소년은 이성친구가 있고, 연령이 높으며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고 용돈이 많을수록, 뷰티 관심도가 높고 뷰티행동도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외모자신감과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얼굴뷰티관심도에는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경, 한동조(2008)는 신체 중 헤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정경숙, 서경현(2002)은 긴 모발을 가진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에 한번이상 모발을 감는 여대생인 자신의 헤어에 더 만족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김영란(2010)은 피부, 헤어,화장에 대한 미용관심이 의사소통에 정적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뷰티관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며,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기 이해가 높아져 자신의 개성에 맞는 긍정적 외모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뷰티관심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뷰티관심은 단순한 개개인의 얼굴에 행하는 미적표현행동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자아존중감, 대인지향의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뷰티관심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최수경. (2007)	여성의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과의 관계.
김수경, 한동조. (2008)	남녀 고등학생들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분석
설현진. (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김영란. (2010)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관심 요인연구
설현진, 최인려. (2010)	중,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구성원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①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구성원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② 국가별로 분류하여 각 국가별로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③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구성원의 외모관리 유무와 이유, 외모 평가대상과 모방대상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2)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①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분

석한다.

- ②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③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외모관리 유무와 이유, 외모평가 대상과 모방대상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3)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구성원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①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구성원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 의복행동 특성,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②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구성원의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

### 4) 연구문제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별(내의, 상의, 하의, 외의) 사용 실태와 섬유선호도 및 세탁방법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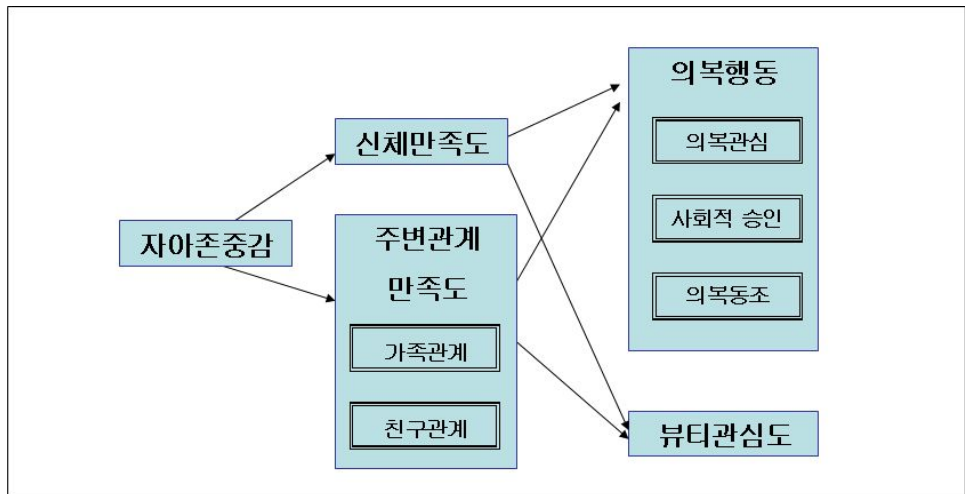
- ① 의복종류별(내의, 상의, 하의, 외의) 소유개수를 조사한다.
- ② 의복종류별(내의, 상의, 하의, 외의) 섬유선호도와 그 선택 원인을 조사한다.
- ③ 의복종류별(내의, 상의, 하의, 외의) 연간 구매빈도와 평균구매

비용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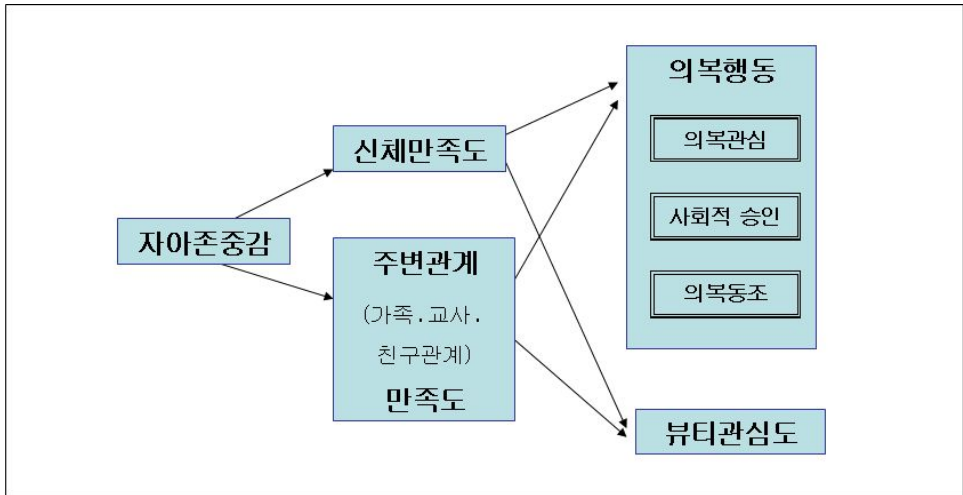
④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세탁방법을 조사한다.

### 5)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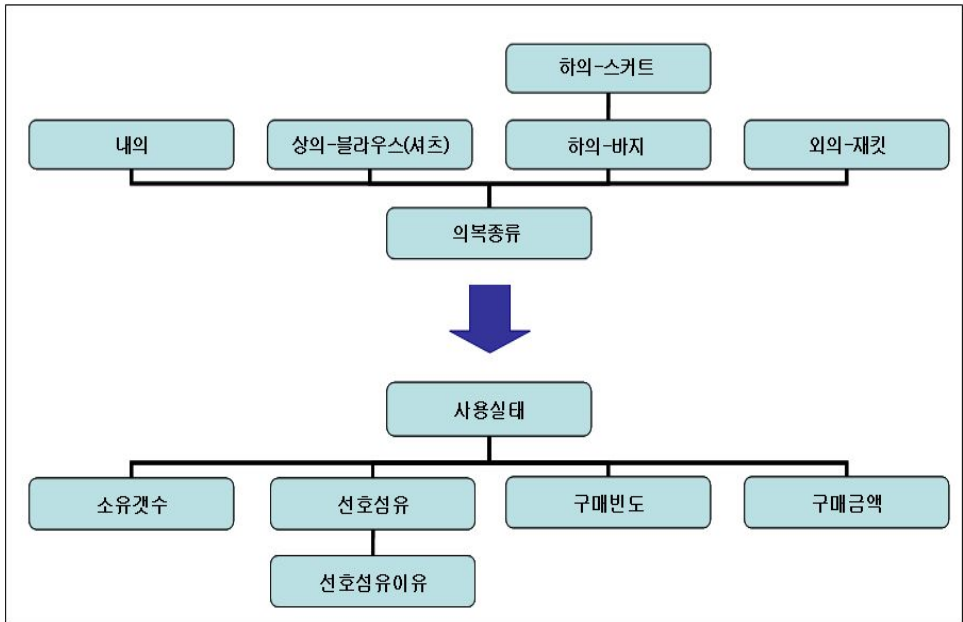
본 연구문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청소년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성인의 연구모형



<그림 2> 청소년의 연구모형



<그림 3>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 연구모형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적인 특성에 의해 설문지법과 함께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의 읽고 쓰기 능력에 따라 한국어와 모국어를 이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교육 정도와 설문지의 이해를 위하여 교사, 다문화지원센터의 상담자와 의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법과 면접법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의류전문가 4인과 뷰티전문가 2인, 다문화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2인, 재한 외국학교 교사 2인, 다문화청소년 연구원 1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당자 2인, 한국어 교사 1인, 글로벌센터장과의 개별미팅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의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표 11>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9문항, 신체만족도에 관한 6문항, 가족·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은 가족관계 5문항, 친구관계 5문항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은 사회적 승인성 4문항, 의복관심 5문항, 의복동조성 2문항으로 11문항이며, 뷰티관심도에 관한 5문항, 외모관리 유무와 이유에 관한 2문항, 외모평가에 관한 1문항, 유사외모행동에 관한 1문항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거주기간, 모국, 월수입, 결혼유무, 직업, 자녀유무, 사회계층에 관한 10문항이다. 국가소속감에 관한 문항은 본인인식, 타인인식과 이민여부와 그 이유의 4문항이며, 의복에 대한 실태와 선호도는 내의,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5가지에

따라 소유개수, 선호섬유와 그 이유, 연간 구매빈도와 구매금액에 대해 묻는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탁방법에 대한 내용 1 문항으로 총 8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1> 성인용 설문지의 구성

문항번호	측정변인	문항수	측정방법
I부	자아존중감	9	5단계 리커트 방법
	신체만족도	6	5단계 리커트 방법
II부	가족관계만족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친구관계만족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III부	의복행동	11	5단계 리커트 방법
	뷰티관심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외모관리 일반	4	선다형/기술형
IV부	인구통계학적 특성	10	선다형/기술형
	국가소속감 일반	4	선다형/기술형
V부	의복종류별 사용실태 및 선호섬유	25	선다형/기술형
	세탁방법	1	선다형
	합계	8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표 12>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은 성인용 문항과 개수가 동일하며, 가족·교사·친구관계에 있어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의 환경으로 교사와의 관계 5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과 외모관리 유무와 이유, 외모평가와 유사외모모방행동에 대한 문항과 개수는 성인과 동일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부모의 모국, 용돈수준, 학급내 성적등수, 사회계층에 관한 8문항이다. 국가소

속감에 관한 문항은 본인 인식, 타인 인식과 이민여부와 그 이유의 4 문항이며, 의복에 대한 실태는 새 의복이 생기는 기간에 대한 빈도와 소유청바지의 개수에 대한 2문항이다. 청소년을 위한 설문지는 총 64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 청소년용 설문지의 구성

문항번호	측정변인	문항수	측정방법
I 부	자아존중감	9	5단계 리커트 방법
	신체만족도	6	5단계 리커트 방법
II 부	가족관계만족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교사관계만족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친구관계만족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III부	의복행동	11	5단계 리커트 방법
	뷰티관심도	5	5단계 리커트 방법
	외모관리 일반	4	선다형/기술형
	의복구매 일반	2	선다형/
IV부	인구통계학적 특성	8	선다형/기술형
	국가소속감 일반	4	선다형/기술형
합계		64	

각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의 5개국어로 번역하여 작성되었다.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인 Self-Esteem Scale(RSES)을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문항은 <표 13>과 같다.

<표 1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up>1)</sup>

요인	문항	신뢰도
자아존중감	1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0.71
	2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내가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느낀 경험이 있다.	
	4 나는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6 나 자신에 만족한다.	
	7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9 때때로 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RSES는 문혜경, 유태순(2003)와 박은정, 정명선(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89이었으며, 박은정, 정명선(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가 0.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4개로 총 9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신뢰도계수는 0.71로 나타났다.

1) 역산문항은 3,7,8,9 번이다.

## 2)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김경화, 김경연(1996)의 아동용 측정문항중 외모에 관한 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문항은 <표 14>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85로 나타났다.

<표 14> 신체만족도 측정도구

요인	문항		신뢰도
신체만족도	1	나의 몸매(체격)는 보기좋다	0.85
	2	나의 몸무게는 적당하다	
	3	나의 얼굴은 잘생겼다 (예쁘다)	
	4	나의 키는 적당하다	
	5	나의 피부색은 보기에 좋다	
	6	나의 외모는 보기에 좋다	

## 3)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족·교사·친구관계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은 Walter W. Hudson (1992)이 제작한 것을 정혜인(1992)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사와 친구에 대한 문항은 김경화, 김경연(1996)의 아동용 측정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한 문항은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 5개와 친구관계에 대한 문항 5개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5.37%를 설명할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15>와 같다. 요인1의 설명력은 30.59%,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84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만족도라 명명하였다. 요인2의 설명력은 24.78%, 신뢰도계수는 0.74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만족도라 명명하였다.

<표 15>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측정도구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 도
요인1 - 가족 관계 만족 도	나는 나의 가족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0.849	3.06	30.59	0.84
	나의 가족들은 서로를 잘 보살펴 준다	0.811			
	나는 나의 가족을 의지할 수 있다	0.775			
	내 가족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0.755			
	나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좋아한다	0.619			
요인2 - 친구 관계 만족 도	나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0.773	2.48	24.78	0.74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0.727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	0.711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 많다	0.644			
	나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0.558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한 문항은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5개, 친구관계에 대한 문항 5개, 교사관계에 대한 문항 5개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청

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5.88%를 설명할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측정도구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요인1 - 가족 관계 만족 도	나는 나의 가족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0.849	3.06	30.59	0.85
	나는 나의 가족을 의지할 수 있다	0.811			
	나의 가족들은 서로를 잘 보살피 준다	0.775			
	내 가족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0.755			
	나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좋아한다	0.619			
요인2 - 교사 관계 만족 도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0.767	2.84	18.93	0.77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0.724			
	우리학교에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계신다.	0.698			
	선생님은 나를 좋아한다	0.692			
요인3 - 친구 관계 만족 도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자주 한다.	0.570	2.45	16.36	0.75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낸다	0.773			
	나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0.727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 많다	0.711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0.644			
나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0.558				

요인1의 설명력은 30.59%,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만족도라 명명하였다. 요인2의 설명력은 18.93%, 신뢰도계수는 0.77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만족도라 명명하

였다. 요인3의 설명력은 16.36%, 신뢰도계수는 0.75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만족도라 명명하였다.

#### 4) 의복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의복행동 요인에 대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의복행동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0%를 설명할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의복행동 측정도구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 값	설명 분산 (%)	신뢰도
요인1-의복 관심	여러 가지 옷이 이것저것 잘 어울리는지 물어본다.	0.747	2.94	26.70	0.81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본다.	0.764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은 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0.721			
	친구가 옷을 사러갈 때 같이 가서 어떤 옷이 있나 살펴 본다.	0.709			
	부모님이 싫어해도 유행하는 옷을 입겠다.	0.696			
요인2-사회적 승인성	새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기분이 많이 좋다	0.784	2.13	19.36	0.72
	눈에 떨 수 있는 색의 옷을 좋아한다	0.765			
	옷을 잘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주기를 바란다.	0.633			
	단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옷을 활용한다	0.541			
요인3-의복 동조	만약 모임에서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왕따라고 느낄 것이다	0.867	1.53	13.94	0.64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0.799			

요인1의 설명력은 26.70%,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81로 나타났으며, 의복관심이라 명명하였다. 요인2의 설명력은 19.36%, 신뢰도계수는 0.72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승인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3의 설명력은 13.94%, 신뢰도계수는 0.64로 나타났으며, 의복동조라 명명하였다.

### 5) 뷰티관심도

뷰티관심도의 측정도구는 설현진(2010)의 뷰티관심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문항은 <표 18>과 같다. 미용전반에 관한 관심에 대한 5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설현진(201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계수)는 0.9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도 0.90으로 나타났다.

<표 18> 뷰티관심도 측정도구

요인	문항	신뢰도
뷰티 관심 도	나는 미용(얼굴,머리,손발톱 꾸미기)에 관심이 많다.	0.90
	미용(얼굴,머리,손발톱 꾸미기) 무료수업이 있으면 듣고 싶다.	
	나는 머리를 꾸미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	
	나는 화장법을 배워보고 싶다.	
	나는 손발톱 메니큐어 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	

## 6) 외모관리 일반사항과 의복사용 실태조사 및 섬유선호도 문항

의복사용 실태조사 및 섬유선호도 측정도구는 <표 19>와 같다. 의복종류별 사용실태와 섬유선호도에 관한 문항과 외모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모관리의 이유와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외모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외모모방 경험의 대상에 대한 질문문항으로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의복사용 실태조사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의복의 구매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새 옷이 생기는 빈도와 청바지 소유개수에 대한 2문항을 선다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성인의 의복사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의복의 종류를 내의,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5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개수와 선호섬유, 선호하는 이유와 연간 구매빈도 및 1회 평균 구매비용에 대한 문항을 선다형 및 기술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의복종류별 선호섬유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호섬유의 종류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하였으며, 이는 김선경, 이희선, 김종배(1998)의 연구에서 섬유유형별 선호집단을 천연섬유(면)선호, 천연섬유(마, 견, 모 등)선호, 인조섬유 선호, 혼방 선호로 분류한 것을 참조하여, 선호섬유집단을 면 선호, 면 외의 천연섬유(마, 견, 모 등)선호,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혼방선호와 합성섬유 선호로 분류한 후 전문가 집단과 토의하여 각 의복에 따라 섬유의 종류를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9> 의복종류별 사용 실태와 섬유번호도 문항

구분	문항
사용 실태	의복종류별의 소유개수
	의복종류별 연간 구매빈도
	의복종류별 1회 평균 구매비용
섬유 번호도	의복종류별 선호 섬유의 종류
	의복종류별 선호 섬유를 구매하는 이유

### 7) 세탁방법

세탁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세탁에 대한 방법을 크게 가정용 세탁기를 이용한 방법과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었고, 이를 색상, 섬유종류에 따른 구분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여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8) 인구통계적 변인

성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거주기간, 모국, 월수입, 결혼유무, 직업, 자녀유무, 사회계층에 관한 10문항으로,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부모의 모국, 용돈수준, 학급내 성적등수, 사회계층에 관한 8문항으로,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9) 국가소속감

국가소속감에 관한 문항은 본인이 인식하는 국가소속감, 타인이 인식하는 국가소속감과 이민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4문항을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3. 조사방법

본 연구는 이주의 1세대인 다문화가정 성인 구성원과 2세대인 청소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조사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였으며, 2차 조사는 본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였다. 1차 조사는 2010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에 걸쳐 다문화가정의 주부 7명과 다문화가정 학생 1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문항의 이해도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정 보완하여 2차 설문작성에 이용하였다. 2차 조사는 2010년 6월 15일에서 8월 1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의 성인 설문 대상자는 서울과 충남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글로벌 빌리지센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교육기관과 국내 다문화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교사와 담당직원, 상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조사 후 즉시 회수하거나, 직접방문 및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72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8부를 제외한 총 254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한국가정 성인의 설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다수의 조사원을 통해 배포 및 회수되었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여 172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1

부를 제외한 총 161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청소년 설문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설문지는 서울과 충남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 연구 지정 초등학교와 재한 외국인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교사와 멘토, 담당 상담원들의 협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조사 후 즉시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총 130부를 배포하여, 11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6부를 제외한 총 101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한국가정 청소년의 설문지는 서울,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울지역은 다수의 조사원을 통해 배포 및 회수 되었으며, 충남지역은 충남소재의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총 150부를 배포하여, 128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2부를 제외한 총 116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이용된 통계분석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분석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요인분석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외모관리 일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관관계를 알기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일곱째,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섬유선호도와 사용실태, 세탁방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분석( $\chi^2$ )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성인 구성원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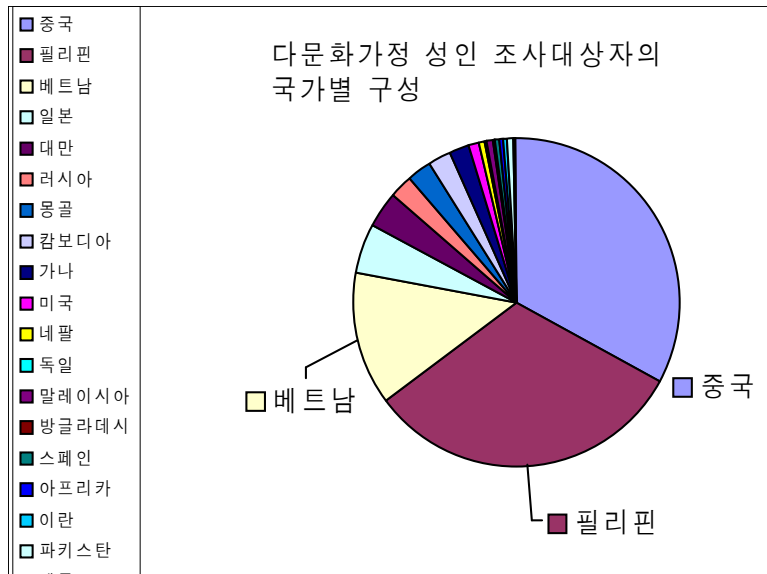
#### 1)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가정의 성인 조사대상자는 총 254명으로 국가별 분포는 <표 20>이며, 그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표 20>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가별 특성 N(%)

국가	빈도(N)	퍼센트(%)	국가	빈도(N)	퍼센트(%)
중국	84	33.1	네팔	1	0.4
필리핀	81	31.9	독일	1	0.4
베트남	33	13.0	말레이시아	1	0.4
일본	13	5.1	방글라데시	1	0.4
대만	9	3.5	스페인	1	0.4
러시아	6	2.4	아프리카	1	0.4
몽골	6	2.4	이란	1	0.4
캄보디아	6	2.4	파키스탄	1	0.4
가나	5	2.0	태국	1	0.4
미국	3	1.2	합계	254	100



<그림 4>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가별 구성

설문 조사대상자의 254명의 모국에 대한 조사결과, 총 19개국이 있으며 그 국가별 분포는 중국인이 84명으로 33.1%, 필리핀인이 81명으로 31.9%, 베트남인이 33명으로 13%를 차지했으며, 그 외, 일본인 13명, 대만인 9명, 러시아인, 몽골인, 캄보디아인 각 6명, 가나인 5명, 미국인 3명, 네팔인, 독일인, 말레이시아인, 방글라데시인, 스페인인, 아프리카인, 이란인, 파키스탄인, 태국인이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2)

2) 설문응답자의 출신국가 비율은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비율과 유사하다.

다문화가정의 성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21>과 같다.

<표 21>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18~25세	56(22.0)	거주 기간	1년미만	45(17.7)
	26~30세	72(28.3)		2~3년	73(28.7)
	31~40세	86(34.3)		3~5년	39(15.4)
	41세이상	40(15.4)		5~10년	56(22.0)
	<b>합계</b>	<b>254(100)</b>		10년이상	41(16.1)
결혼	유	184(72.4)	자녀	<b>합계</b>	<b>254(100)</b>
	무	70(27.6)		유	151(59.4)
	<b>합계</b>	<b>254(100)</b>		무	103(40.6)
성별	남	61(24%)	직업	<b>합계</b>	<b>254(100)</b>
	여	193(76%)		학생	50(19.7)
	<b>합계</b>	<b>254(100)</b>		전업주부	104(40.9)
월 가정 수입	100만원 미만	70(27.6)	사회 계층	직장인	100(39.4)
	100~200만원	98(38.6)		<b>합계</b>	<b>254(100)</b>
	200~300만원	59(23.2)		상	26(10.2)
	300~500만원	18(7.1)	중	184(72.4)	
	500만원 이상	9(3.5)	하	44(17.3)	
	<b>합계</b>	<b>254(100)</b>	<b>합계</b>	<b>254(100)</b>	

다문화가정의 성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8~25세가 22.0%, 26~30세가 28.3%, 31~40세가 34.3%, 41세 이상 15.4% 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72.4%, 미혼자가 27.6%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24%, 여자가 73% 이었다.

월 가정수입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27.6%, 100~200만원이 38.6%, 200~300만원이 23.2%, 300~500만원이 7.1%, 500만원 이상이 3.5% 이었다.

거주기간별 분포는 1년 미만이 17.7%, 2~3년이 28.7%, 3~5년이 15.4%, 5~10년이 22.0%, 10년 이상이 16.1% 이었다.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59.4%, 자녀가 없는 사람은 40.6% 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19.7%, 전업주부가 40.9%, 직장인이 39.4% 이었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은 상층이 10.2%, 중층이 72.4%, 하층이 17.3% 이었다.

한국가정의 성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는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18~25세	44(27.3)	거주 기간	1년미만	-
	26~30세	28(17.4)		2~3년	-
	31~40세	48(29.8)		3~5년	-
	41세이상	41(25.5)		5~10년	-
	<b>합계</b>	<b>161(100)</b>		10년이상	161
결혼	유	75(46.6)	자녀	<b>합계</b>	<b>161(100)</b>
	무	86(53.4)		유	72(45.3)
	<b>합계</b>	<b>161(100)</b>		무	88(54.7)
성별	남	62(38.5)	직업	<b>합계</b>	<b>161(100)</b>
	여	99(61.5)		학생	43(26.7)
	<b>합계</b>	<b>161(100)</b>		전업주부	30(18.6)
월 가정 수입	100만원 미만	10(6.2)	직장인	직장인	88(54.7)
	100~200만원	22(13.7)		<b>합계</b>	<b>161(100)</b>
	200~300만원	45(28.0)		상	11(6.8)
	300~500만원	57(35.4)	사회 계층	중	125(77.6)
	500만원 이상	27(16.8)		하	25(15.5)
	<b>합계</b>	<b>161(100)</b>		<b>합계</b>	<b>161(100)</b>

한국가정의 성인연구대상의 연령은 18~25세가 27.3%, 26~30세가 17.4%, 31~40세가 29.8%, 41세 이상이 25.5% 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46.6%, 미혼자가 53.4% 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38.5%, 여자가 61.5% 이었다.

월 가정수입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6.2%, 100~200만원이 13.7%, 200~300만원이 28%, 300~500만원이 35.4%, 500만원 이상이 16.8% 이었다.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45.3%, 자녀가 없는 사람은 54.7%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26.7%, 전업주부가 18.6%, 직장인이 54.7% 이었으며, 사회계층은 상층이 6.8%, 중층이 77.6%, 하층이 15.5% 이었다.

## (2) 국가 소속감과 이민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국가소속감에 대한 지각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인식으로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다문화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국민소속감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23>과 같다.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기지각은 외국인이 48.4%,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지각이 38.2%, 한국인이 7.5%,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가 5.1%, 기타(세계인)이 0.8% 이었다. 다문화가정 성인의 타인지각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46.9%, 외국인이 42.5%, 한국인이 8.3%,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1.6%, 기타(세계인)이 0.8% 이었다.

<표 23> 다문화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국가소속감

N(%)

특성	구분	빈도(%)
자기지각	한국인	19(7.5)
	외국인	123(48.4)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97(38.2)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13(5.1)
	기타(세계인 )	2(0.8)
	<b>합계</b>	<b>254(100)</b>
타인지각	한국인	21(8.3)
	외국인	107(42.5)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119(46.9)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4(1.6)
	기타(세계인 )	2(0.8)
	<b>합계</b>	<b>254(100)</b>

다문화가정의 성인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본인 인지는 7.5%, 타인 인지 8.3%이고, 외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본인 인지는 48.4%, 타인 인지 42.5%로 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이는 국가 소속감이 주변에서 한국인으로 대해도 조사대상자 자신은 외국인이라는 인식과 소속감이 더 큰 것을 의미하며, 금명자 외 (2006)의 연구결과에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이민의사와 그 이유는 <표 24>와 같다.

<표 2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이민의사와 이민이유

N(%)

특성	구분	빈도 (%)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이민 의사	예	113(44.5)	100(62.1)
	아니오	78(30.7)	43(26.7)
	잘 모르겠다	63(24.8)	18(11.2)
	<b>합계</b>	<b>254(100)</b>	<b>161(100)</b>
$\chi^2 = 15.874^{**}$ p = 0.000			
이민 이유	교육혜택	34(13.4)	23(14.3)
	취업의 기회	56(22.0)	16(9.9)
	부당한 대우	24(9.4)	2(1.2)
	주변사람들의 시선	17(6.7)	3(1.9)
	좋은 환경	63(24.8)	54(33.5)
	기타(문화체험, 특정국가 선호 등)	9(3.5)	24(14.9)
	없음	51(20.1)	39(24.2)
	<b>합계</b>	<b>254(100)</b>	<b>161(100)</b>
$\chi^2 = 57.159^{**}$ p = 0.000			

\*\*p<.01

다문화가정 성인의 이민의사유무는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이 44.5%, 없는 사람이 30.7%, 잘 모르겠다가 24.8% 이었다. 이민 이유는 좋은 환경이 24.8%, 취업의 기회가 22%, 교육혜택 13.4%, 부당한 대우 9.4%, 기타(문화 체험, 특정국가 선호 등)이 3.5% 이었다. 한국가정 성인의 이민의사유무는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이 62.1%, 없는 사람이 26.7%, 잘 모르겠다가 11.2% 이었다. 이민이

유는 좋은 환경이 33.5%, 주변사람의 시선 6.7%, 기타(문화 체험, 특정국가 선호 등)이 14.9%, 교육혜택 14.3%, 취업의 기회가 22%, 주변사람의 시선 1.9%, 부당한 대우 1.2% 이었다.

이민 이유에 대한 응답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성인조사대상자 모두 부당한 대우나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같은 부정적인 이유보다는 미래의 자녀를 위한 환경이나, 취업의 기회와 같은 이유가 높았으나, 다문화가정 성인들은 부당한대우(9.4%), 주변사람들의 시선(6.7%)로 16.1%가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 관심도의 상호관련성

(1)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 관련성

다문화가정의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구분	자아 존중감	신체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친구 관계 만족도	의복 관심	사회적 승인성	의복 동조	뷰티 관심도
자아존중감	1	-	-	-	-	-	-	-
신체만족도	.419**	1	-	-	-	-	-	-
가족관계 만족도	.548**	.370**	1	-	-	-	-	-
친구관계 만족도	.180**	.121	.311**	1	-	-	-	-
의복관심	-.134*	.041	.040	.297**	1	-	-	-
사회적 승인성	-.037	-.016	.053	.199**	.470**	1	-	-
의복동조	-.122	.003	-.090	.130*	.430**	.406**	1	-
뷰티관심도	.055	.135*	.132*	.306**	.514**	.373**	.343**	1

\* $p < .05$ , \*\* $p < .01$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특히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만족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48$ )를 보였다. 친구관계만족도는 신체만족도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 의복동조, 뷰티관심도의 전반적인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의복관심과는 부정적 유의적 관계가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뷰티관심도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의복관심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14$ )를 보여 의복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가정 성인은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 관련성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구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의복관심	사회적승인성	의복동조	뷰티관심도
자아존중감	1	-	-	-	-	-	-	-
신체만족도	.394**	1	-	-	-	-	-	-
가족관계만족도	.457**	.208**	1	-	-	-	-	-
친구관계만족도	.255**	.282**	.430**	1	-	-	-	-
의복관심	.023	.228**	.180*	.343**	1	-	-	-
사회적승인성	.120	.227**	.237**	.328**	.530**	1	-	-
의복동조	-.100	.045	-.099	-.093	.017	.013	1	-
뷰티관심도	-.129	.055	-.022	.078	.525**	.394**	.094	1

\* $p < .05$ , \*\* $p < .01$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특히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만족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 $r = .457$ )를 보였다. 친구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 의복동조, 뷰티관심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는 모두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뷰티관심도는 사회적 승인성과 의복관심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의복관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25$ )를 보여 의복에 관심이 많은 한국가정 성인은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동조는 다른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에서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동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변인들의 상호관련성 비교분석

<표 25>와 <표 26>에 나타난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관련성을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한 상호상관관계는 모두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에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가족관계만족도에서만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친구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도 모두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

만족도가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에 모두 정적 유의적 관계를 보인데 반해,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신체만족도와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이 모두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성인의 친구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 의복동조에 모두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한국가정 성인의 친구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만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의복동조에는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성인의 뷰티관심도는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 의복동조에 모두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한국가정 성인의 친구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 의복관심만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는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 3)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성인구성원의 차이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국가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뷰티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국적별 비율에 따라 중국(33.1%), 필리핀(31.9%), 베트남(13%)의 3개국과 그 외의 국가를 기타로 분류하고,<sup>3)</sup> 이들 국가의 가정과 한국 가정과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

3) 이는 2009년 통계청의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비율에서 나타난 주요 3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일치한다.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구분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F	p
국가	중국	84	3.35	0.61	3.42**	0.009
	필리핀	81	3.47	0.36		
	베트남	33	3.15	0.28		
	기타	56	3.11	0.51		
	한국	161	3.47	0.52		
전체		415	3.41	0.50		

\*\* $p < .01$

각 국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한국(평균=3.47), 중국인(평균=3.35), 필리핀인(평균=3.47)은 자아존중감의 평균치가 높게 나오는데 비해 베트남인(평균=3.15)과 기타국인(평균=3.11)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인과 기타국인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국이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지배와 식민지로서 지내온 내재된 문화적인 영향과 한국내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언어적특색, 피부색, 출신국의 국제적으로 낮은 지위 등으로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간주되며 평등한 참여와

권리를 박탈당한 영향(김영옥 외 5인, 2009)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실태조사(2006)와 김기연(2007)의 연구결과에서 베트남결혼이주 여성의 평균나이는 19~24세미만이 가장 많고 중졸이상의 학력이 과반수이며 배우자의 연령은 40세이상,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아 다른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학력,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필리핀은 같은 동남아권이지만 영어를 사용하며, 국교인 천주교로 인한 다양성을 가진 기름진 문화적 영향(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교육원, 2009) 으로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구분		신체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국가	중국	84	3.26	0.64	9.141**	.000
	필리핀	81	3.66	0.65		
	베트남	33	3.03	0.39		
	기타	56	3.43	0.80		
	한국	161	3.19	0.67		
전체		415	3.31	0.69		

\*\* $p < .01$

각 국가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인(평균=3.66)은 신체만족도의 평균치가 매우 높게 나오는데 비해 베트남인(평균=3.03)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인의 신체만족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자들은 외모와 인상만으로 최종 선택된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을(김영옥, 김현미, 양민석, 윤혜린, 정진주, 황정미, 2009) 고려할 때 그들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 $r = .394$ )가 있으므로, 베트남 성인의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낮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다.

각 국가에 따라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그 하위요인인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평균=3.92), 중국인(평균=3.96), 필리핀인(평균=3.99), 기타(평균=4.01)는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그 하위요인인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평균치가 높게 나오는데 비해 베트남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평균=3.11)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만족도와의 상관관계( $r = .548$ ), 신체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와의 상관관계( $r = .370$ ),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만족

도와의 상관관계( $r=.180$ )의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낮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부모와 남편이 베트남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아보며 못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특별취재팀, 2009, 조선일보 A6, 「다문화가정의 미래, 아빠 손에 달렸다.」) 인터뷰 내용과 베트남 여성에 대한 비인권적인 보도들은 베트남 성인의 가족내에서의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비교적 힘들고, 이로 인해 베트남 성인이 낮은 가족관계만족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

구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가족관계	국가	중국	84	3.96	0.73	13.45**	.000
		필리핀	81	3.99	0.67		
		베트남	33	3.11	0.36		
		기타	56	4.01	0.61		
		한국	161	3.92	0.64		
	전체	415	3.89	0.68			
친구관계	국가	중국	84	3.52	0.64	4.73**	.001
		필리핀	81	3.56	0.70		
		베트남	33	3.19	0.30		
		기타	56	3.59	0.59		
		한국	161	3.68	0.60		
	전체	415	3.57	0.62			

\*\* $p<.01$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의복행동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의복관심	국가	중국	84	3.22	0.79	1.25	.289
		필리핀	81	3.04	0.89		
		베트남	33	3.13	0.33		
		기타	56	3.03	0.83		
		한국	161	3.21	0.69		
	전체	415	3.89	0.68			
사회적 승인성	국가	중국	84	3.12	0.77	3.26*	.012
		필리핀	81	3.03	0.73		
		베트남	33	3.17	0.44		
		기타	56	3.04	0.75		
		한국	161	3.32	0.66		
	전체	415	3.17	0.70			
의복동조	국가	중국	84	2.58	0.94	9.01**	.000
		필리핀	81	2.84	0.97		
		베트남	33	2.91	0.59		
		기타	56	2.38	0.99		
		한국	161	2.25	0.71		
	전체	415	2.50	0.88			

\* $p < .05$ , \*\* $p < .01$

각 국가에 따라 의복행동은 의복관심은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승인성 의복행동은 한국인과 중국인은 높게 나타나는데(평균=3.32) 비해 필리핀인은 낮게 나타나(평균=3.03) 유의미한 차이( $p<0.05$ )를 나타냈으며, 의복동조는 베트남인(평균=2.91), 필리핀인(평균=2.84)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평균=2.25)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p<0.01$ )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필리핀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의복관심과 의복의 사회적 승인성에 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유행과 흥미를 추구한다는 문혜경,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베트남인은 낮은 가족·친구관계 만족도가 의복동조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의복동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문혜경,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베트남의 국가지위<sup>4)</sup>와 낮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학력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조성이 크다는 이경남, 이인자(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의복의 구매에 있어 불안수준이 동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태순(1990)의 연구결과와 상치한다.

#### (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뷰티관심도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에 대한 차

---

4) 2009년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로 한나라의 경쟁성장을 등의 중심지표로 사용된다) 순위는 중국 3위(4,758,000), 필리핀 48위(160,991), 베트남 57위(92,439), 한국 15위(820,300) 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

구분		뷰티관심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국가	중국	84	3.30	1.21	3.433**	.009
	필리핀	81	3.30	0.94		
	베트남	33	2.93	0.51		
	기타	56	3.31	0.91		
	한국	161	2.96	0.88		
전체		415	3.14	0.96		

\*\* $p < .01$

각 국가에 따른 뷰티관심도는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평균=3.30), 필리핀인(평균=3.30), 기타국(평균=3.31)의 뷰티관심도의 평균치가 높게 나오는데 비해 한국인(평균=2.96), 베트남인(평균=2.93)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뷰티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나타낸다는 문혜경,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4)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뷰티관심도의 인과관계를 다문화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국가적인 특성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인(33.1%), 필리핀인(31.9%), 베트남(13%),

기타(일본, 대만,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가나, 미국, 네팔, 독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페인, 아프리카, 이란, 파키스탄, 태국), 한국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R^2$	표준화 계수 $\beta$	계수의 유의성	
			$F$	$p$			$t$	$p$
중국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9.273**	0.003	0.102	0.319	3.045**	0.003
필리핀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27.135**	0.000	0.256	0.506	5.209**	0.000
베트남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6.693*	0.015	0.178	0.421	2.587*	0.015
기타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11.308*	0.001	0.158	0.416	3.363**	0.001
다문화 전체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53.804**	0.000	0.176	0.419	7.335**	0.000
한국	신체 만족도	자아 존중감	29.133**	0.000	0.155	0.394	5.398**	0.000

\*  $p < .05$ , \*\*  $p < .01$

<표 32>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 모두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적 특색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정성이 높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 사고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주관적,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장선철, 송미현(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 등(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친구관계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만족도와 친구관계만족도의 점수를 합산한 가족·친구관계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i>R</i> <sup>2</sup>	<i>β</i>	<i>t</i>	<i>p</i>
중국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18.873**	.000	.187	.433	4.344**	.000
필리핀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20.094**	.000	.203	.450	4.483**	.000
베트남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6.690*	.015	.178	.421	2.587*	.015
기타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16.782**	.000	.237	.487	.410**	.000
다문화 전체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68.683**	.000	0.214	0.463	8.287**	.000
한국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자아 존중감	35.061**	.000	.181	.425	5.921**	.000

\* $p < .05$ , \*\* $p < .01$

<표 33>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이 국가적 특색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p < 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에 대한 자기이해 및 수용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이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김희숙, 박경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R <sup>2</sup>	표준화 계수 β	계수의 유의성	
			F	p			t	p
중국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2.798	0.098	0.033	0.182	1.673	0.098
	사회적응인성		4.799*	0.031	0.055	0.235	2.191*	0.031
	의복동조		0.000	0.997	0.000	0.000	-0.004	0.997
필리핀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0.605	0.439	0.008	0.087	0.778	0.439
	사회적응인성		0.557	0.458	0.007	-0.084	-0.746	-0.458
	의복동조		0.355	0.553	0.004	0.067	0.596	0.553
베트남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2.932	0.097	0.086	0.294	1.712	0.097
	사회적응인성		0.256	0.616	0.008	0.091	0.506	0.616
	의복동조		0.388	0.538	0.012	-0.111	-0.623	0.538
기타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0.675	0.415	0.012	-0.111	-0.822	0.415
	사회적응인성		2.073	0.156	0.037	-0.192	-1.440	0.156
	의복동조		0.335	0.565	0.006	-0.078	-0.578	0.565
다문화 전체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0.423	0.516	0.002	0.041	0.651	0.516
	사회적응인성		0.065	0.799	0.000	-0.016	-0.255	0.799
	의복동조		0.002	0.963	0.000	0.003	0.046	0.963
한국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8.716**	0.004	0.052	0.228	2.952**	0.004
	사회적응인성		8.649**	0.004	0.052	0.227	2.941**	0.004
	의복동조		0.325	0.569	0.002	0.045	0.570	0.569

\*p<.05, \*\*p<.01

<표 34>를 살펴보면 다문화국가 중 중국인은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 관계에 정적 영향을 보이며 ( $p<0.05$ ), 한국인은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에 모두 정적 영향을 보였다 ( $p<0.01$ ). 이는 중국인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을 보이고, 한국인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과 의복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외적표현요인과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온 집단이 의류를 이용한 자신표현에 관심이 많다는 황정윤, 조기여,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i>R</i> <sup>2</sup>	$\beta$	<i>t</i>	<i>p</i>
중국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0.865	0.355	0.010	0.102	0.930	0.355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1.591	0.211	0.019	0.138	1.261	0.211
	의복동조	만족도	0.328	0.569	0.004	-0.063	-0.573	0.569
필리핀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14.829**	0.000	0.158	0.398	3.851**	0.000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5.157*	0.026	0.061	0.248	2.271*	0.026
	의복동조	만족도	3.928	0.051	0.047	0.218	1.982	0.051
베트남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2.595*	0.014	0.178	0.422	2.595*	0.014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3.448	0.073	0.100	0.316	1.857	0.073
	의복동조	만족도	0.019	0.891	0.001	0.025	0.138	0.891
기타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0.364	0.549	0.007	0.082	0.604	0.549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1.159	0.286	0.021	0.145	1.076	0.286
	의복동조	만족도	0.006	0.940	0.000	0.010	0.076	0.940
다문화 전체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10.283**	0.002	0.039	0.198	3.207**	0.002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5.778*	0.017	0.022	0.150	2.404*	0.017
	의복동조	만족도	0.066	0.798	0.000	0.016	0.256	0.798
한국	의복관심	가족·친구관계	16.415**	0.000	0.094	0.306	4.052**	0.000
	사회적 승인성	친구관계	19.716**	0.000	0.110	0.332	4.440**	0.000
	의복동조	만족도	2.066	0.153	0.013	-0.113	-1.437	0.153

\**p*<.05, \*\**p*<.01

<표 35>를 살펴보면 필리핀인은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에 모두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베트남인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관심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국인은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에 모두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중국인과 기타국은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필리핀인은 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의 행동을 보이며, 베트남인은 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 뷰티관심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와 뷰티관심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을 살펴보면, 필리핀인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뷰티관심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필리핀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뷰티관심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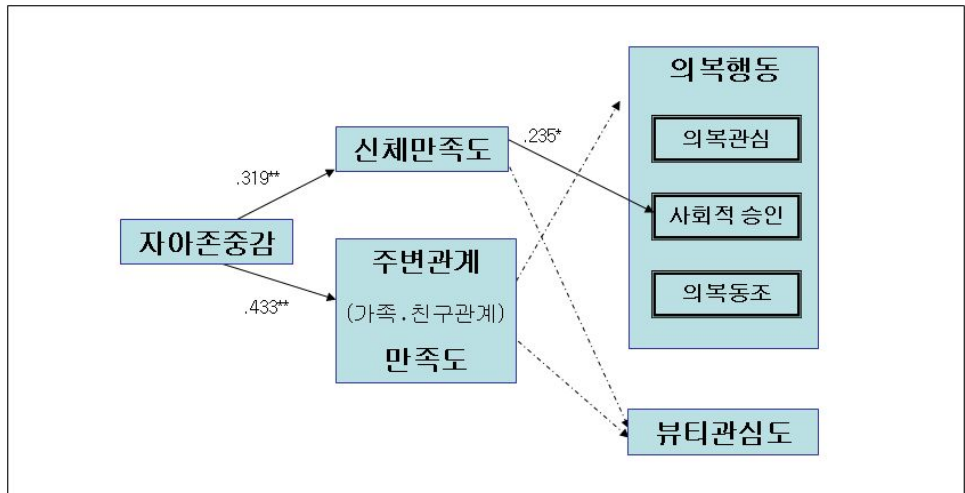
집단	종속 변수	독립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i>R</i> <sup>2</sup>	$\beta$	<i>t</i>	<i>p</i>
중국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2.508	.117	0.018	.172	1.584	.117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729	.396	.009	.094	.854	.396
필리핀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3.822	.054	.046	.215	1.955	.054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15.953**	.000	.168	.410	3.994**	.000
베트남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1.270	.268	.039	-.198	-1.127	.268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205	.654	.007	.081	.452	.654
기타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070	.793	.001	-.036	-.264	.793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4.337	.042	.074	.273	2.083*	.042
다문화 전체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4.702*	.031	.018	.264	4.340**	.000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18.839**	.000	.070	.074	.851	.396
한국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476	.491	.003	.055	.690	.491
		가족·친구 관계만족도	.153	.696	.001	.031	.391	.696

\**p*<.05. \*\**p*<.01

(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여 모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정의 중국인 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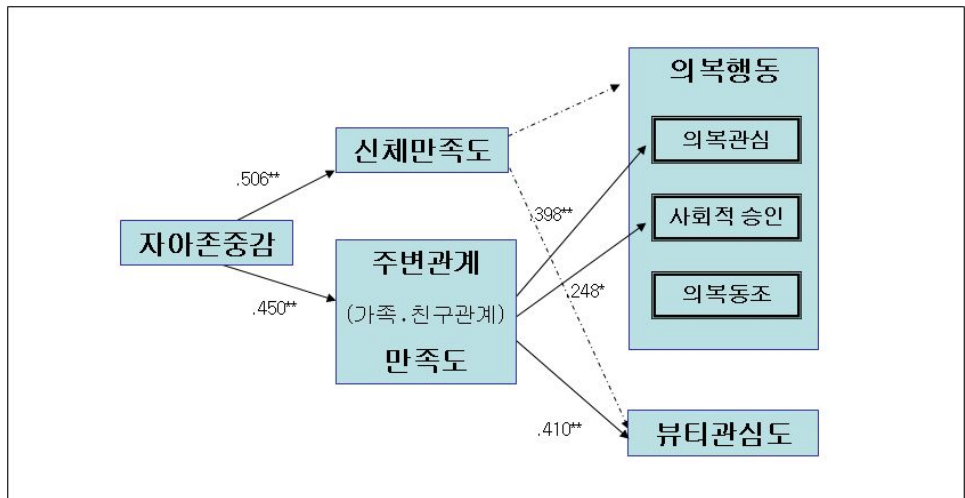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인 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중국인 가정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가정 성인들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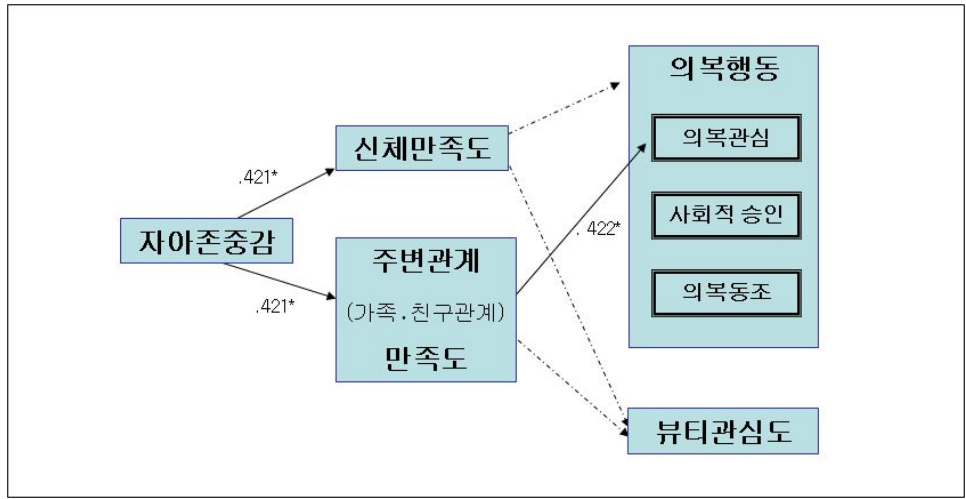
② 다문화가정의 필리핀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필리핀인 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필리핀인 가정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 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 가정 성인들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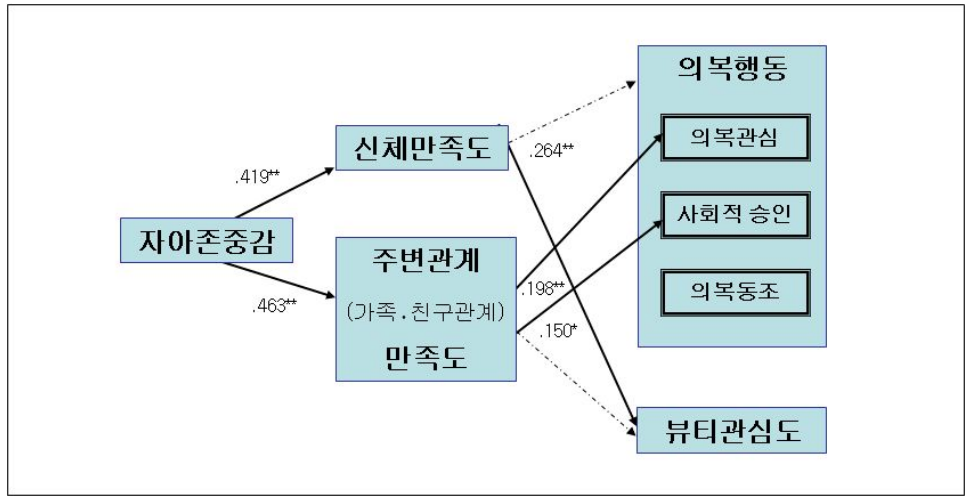
③ 다문화가정의 베트남인 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베트남가정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베트남인 가정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 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가정 성인들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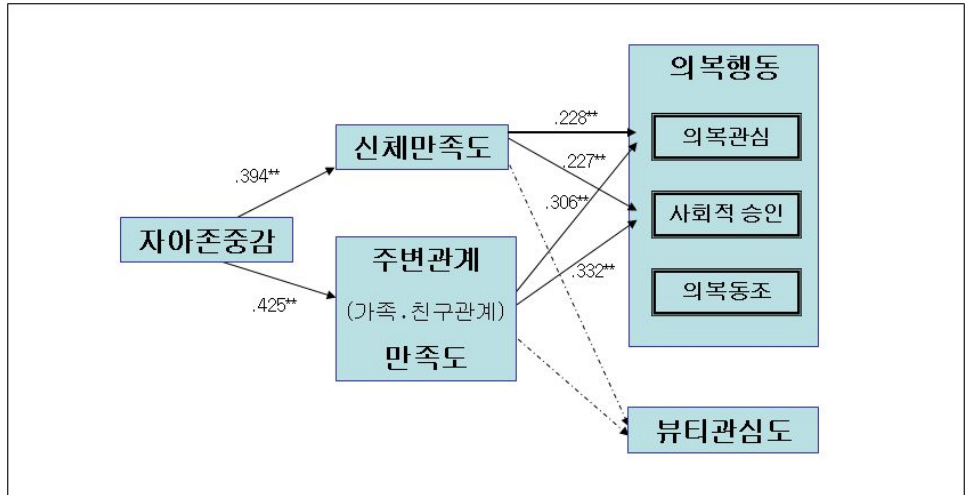
④ 다문화가정 성인 전체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다문화가정 성인 전체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가정성인의 신체만족도는 뷰티관심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 승인의 의복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한국가정 성인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한국가정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의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성인들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성인들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주관적,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장선철, 송미현(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개인에 대한 자기이해 및 수용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이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김희숙, 박경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외적표현요인과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온 집단이 의류를 이용한 자신 표현에 관심이 많다는 황정윤, 조기여,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5) 외모관리 일반사항에 관한 빈도분석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이유와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을 살펴보면 외모관리의 이유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모두 심리적 만족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서와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그 다음의 순위들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모두 더 중요한 것(학업, 일, 가사 등)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돈이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시간이 없다는 답변이 그 다음의 순위들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들 모두 외모관리의 이유와 외모관리를 안하는 이유에 대한 답

변이 거의 똑같이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외모관리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유무에 따른 이유

특성	구분	빈도(%)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계
외모관리하는 이유	심리적만족감	91(35.8)	93(57.8)	184(44.3)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	26(10.2)	9(5.6)	35(8.4)
	주변사람들에게 호감주기위해	57(22.4)	24(14.9)	81(19.5)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18(7.1)	4(2.5)	22(5.3)
	이성에게 호감을 주려고	2(0.8)	8(5.0)	10(2.4)
	강해보이기위하여	10(3.9)	3(1.9)	13(3.1)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30(11.8)	17(10.6)	47(11.3)
	기타(안한다, 그냥 등)	20(7.9)	3(1.9)	23(5.5)
	<b>합계</b>	<b>254(100)</b>	<b>161(100)</b>	<b>415(100)</b>
$\chi^2 = 35.541^{**} \quad p = 0.000$				
외모관리안하는 이유	더 중요한 것이 우선	76(29.9)	52(32.3)	128(30.8)
	시간이 없어서	46(18.1)	25(15.5)	71(17.1)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18(7.1)	13(8.1)	31(7.5)
	돈이 없어서	58(22.8)	27(16.8)	85(20.5)
	관심이 없어서	24(9.4)	18(11.2)	42(10.1)
	기타(한다, 귀찮다 등)	32(12.6)	26(16.1)	58(13.9)
	<b>합계</b>	<b>254(100)</b>	<b>161(100)</b>	<b>415(100)</b>
$\chi^2 = 4.016^{**} \quad p = 0.675$				

\*\* $p < .0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 대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외모모방 경험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을 살펴보면 외모평가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가족이 46.5%로 가장 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이웃과 동성친구인 반면, 한국가정은 주변이웃이 38.5%로 가장 큰 대상이었고, 그 다음이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였다.

<표 3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와 외모모방 대상

특성	구분	빈도(%)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계
외모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성친구	42(16.5)	27(16.8)	69(16.6)
	이성친구	29(11.4)	32(19.9)	61(14.7)
	가족	118(46.5)	29(18.0)	147(35.4)
	전문가	13(5.1)	7(4.3)	20(4.8)
	주변이웃사람	44(17.3)	62(38.5)	106(25.5)
	기타(나자신, 없다 등)	8(3.2)	4(2.5)	12(2.9)
	<b>합계</b>	<b>254(100)</b>	<b>161(100)</b>	<b>415(100)</b>
	$\chi^2 = 45.407^{**} \quad p = 0.000$			
외모모방 대상	친구	58(22.8)	25(15.5)	83(20.0)
	연예인	52(20.5)	76(47.2)	128(30.8)
	가족	45(17.7)	6(3.7)	51(12.3)
	전문가	13(5.1)	19(11.8)	32(7.7)
	주변이웃사람	53(20.9)	22(13.7)	75(18.1)
	없다	23(9.1)	11(6.8)	34(8.2)
	기타	10(3.9)	2(1.2)	12(2.9)
	<b>합계</b>	<b>254(100)</b>	<b>161(100)</b>	<b>415(100)</b>
$\chi^2 = 52.760^{**} \quad p = 0.000$				

\*\* $p < .01$

외모모방의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은 친구와 이웃사람이 22.8%, 20.9%로 총 43.7%를 나타내고, 가족이 17.7%를 나타내 가족과 주

변 사람들이 주된 외모모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은 47.2%가 연예인을 가장 큰 모방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친구와 이웃 사람이 각각 15.5%, 13.7%로 총 29.2%를 나타내 가족외의 주변사람들을 그 다음 외모의 모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한국가정의 성인과 달리 가족이 외모평가의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였으며, 외모모방의 주요대상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에 있어 외모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표 22>에서 나타난 가족관계만족도와 신체만족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 $r=.370$ )를 설명한다.

##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고찰

### 1)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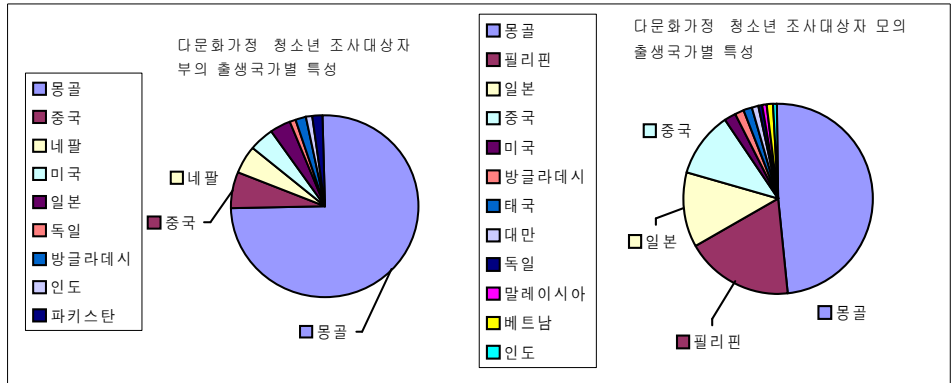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부모의 국가적 비율은 <표 39>와 같으며, 그 분포는 <그림 10>과 같다.

<표 39>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부모출신국가의 비율

N(%)

부출신국가	빈도(N)	퍼센트(%)	모출신국가	빈도(N)	퍼센트(%)
몽골	46	34.1	몽골	56	41.5
중국	4	3.0	필리핀	21	15.6
네팔	3	2.2	일본	15	11.1
미국	3	2.2	중국	13	9.6
일본	2	1.5	미국	2	1.5
독일	1	0.7	방글라데시	2	1.5
방글라데시	1	0.7	태국	2	1.5
인도	1	0.7	대만	1	0.7
파키스탄	1	0.7	독일	1	0.7
-	-	-	말레이시아	1	0.7
-	-	-	베트남	1	0.7
-	-	-	인도	1	0.7
한국	73	54.1	한국	19	14.1
<b>합계</b>	<b>135</b>	<b>100</b>	<b>합계</b>	<b>135</b>	<b>100</b>



<그림 10>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부모출신국가의 분포

<표 39>를 살펴보면 설문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출신국가 비율은 몽골이 46명으로 34.1%, 중국이 4명으로 3.0%, 네팔, 미국이 각 3명으로 각 2.2%, 일본이 2명으로 1.5%, 그 외 독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이 각 1명으로 0.7씩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출신국가 비율은 몽골이 56명으로 41.1%, 필리핀이 21명으로 15.6%, 일본이 15명으로 11.1%, 중국이 13명으로 9.6%, 그 외 미국, 방글라데시, 태국이 각 2명으로 1.5%이며,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가 각 1명으로 0.7%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출신국가 비율은 <표 7>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의 국적별 현황과 비슷하며, 몽골이 특히 많은 이유는 제한 몽골학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는 <표 40>과 같다.

<표 40>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10~13세	64(47.4)	용돈 수준	2만원 미만	79(58.5)
	14~16세	71(52.5)		2~5만원 미만	33(24.4)
	<b>합계</b>	<b>135(100)</b>		5~10만원 미만	10(7.4)
성별	남	56(41.5)		10~15만원 미만	6(4.4)
	여	79(58.5)		15만원 이상	7(5.2)
	<b>합계</b>	<b>135(100)</b>		<b>합계</b>	<b>135(100)</b>
사회계층	상	6(4.4)	성적 등수	상(1~10등)	87(64.4)
	중	108(80.0)		중(11~20등)	37(27.4)
	하	21(15.6)		하(21~30등)	12(8.1)
	<b>합계</b>	<b>135(100)</b>		<b>합계</b>	<b>135(100)</b>

<표 40>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연구대상의 연령은 10~12세의 초등학생이 47.4%, 14~16세의 중학생이 52.5% 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1.5%, 여자가 58.5%이었다. 사회계층은 상층이 4.4%, 중층이 80%, 하층이 15.6%이었다. 한달 용돈수준은 2만원 미만 58.5%, 2~5만원 미만 24.4%, 5~10만원 미만 7.4%, 10~15만원 미만 4.4%, 15만원 이상 5.2%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1~10등) 64.4%, 중(11~20등)이 27.4%, 하(21~30등)가 8.1%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는 <표 41>과 같다.

<표 41> 한국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10~13세	44(43.6)	용돈 수준	2만원 미만	52(51.5)
	14~16세	57(56.4)		2~5만원 미만	37(36.6)
	<b>합계</b>	<b>101(100)</b>		5~10만원 미만	11(10.9)
성별	남	44(43.6)		10~15만원 미만	-
	여	57(56.4)		15만원 이상	1(1.0)
	<b>합계</b>	<b>101(100)</b>		<b>합계</b>	<b>101(100)</b>
사회 계층	상	10(9.9)	성적 등수	상(1~10등)	32(31.7)
	중	74(73.3)		중(11~20등)	49(48.5)
	하	17(16.8)		하(21등이하)	20(19.8)
	<b>합계</b>	<b>101(100)</b>		<b>합계</b>	<b>101(100)</b>

<표 41>을 살펴보면 한국가정의 청소년 연구대상의 연령은 10~13세의 초등학생이 43.64%, 14~16세의 중학생이 56.4%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3.6%, 여자가 56.4%이었다. 사회계층은 상층이 9.9%, 중층이 73.3%, 하층이 16.8%이었다. 한달 용돈수준은 2만원 미만 51.5%, 2~5만원 미만이 36.6%, 5~10만원 미만이 10.9%, 15만원 이상 1.0%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1~10등)이 31.7%, 중(11~20등)이 48.5%, 하(21등 이하)가 19.8%로 나타났다.

(2) 국가 소속감과 이민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국가소속감에 대한 지각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인식으로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국민소속감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42>와 같다.

<표 42>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국가소속감 N(%)

특성	구분	빈도 (%)
본인지각	한국인	48(35.6)
	외국인	51(37.8)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34(25.2)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2(1.5)
	기타(세계인)	-
	<b>합계</b>	<b>135(100)</b>
주변지각	한국인	66(48.9)
	외국인	42(31.1)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27(20.0)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
	기타(세계인)	-
	<b>합계</b>	<b>135(100)</b>

<표 42>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가지각은 외국인이 37.8%, 한국인이 35.6%,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지각이 25.2%,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가 1.5%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타인지각은 한국인이 48.9%, 외국인이 31.1%, 한국인과 외국인이 20%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본인 인지는 35.6%, 타인 인지 48.9%이고, 외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본인 인지는 25.2%, 타인 인지 31.1%로 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이는 주변에서 한국인으로 대해서도 조사대상자 자신은 외국인이라는 인식과 소속감이 더 큰 것을 의미하며 금명자 외(2006), 양계민(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이민의사와 그 이유는 <표 43>과 같다.

<표 4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이민의사와 이유 N(%)

특성	구분	빈도(%)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이민 의사 유무	예	58(43.0)	44(43.6)
	아니오	34(25.2)	28(27.7)
	잘 모르겠다	43(31.9)	29(28.7)
	<b>합계</b>	<b>135(100)</b>	<b>101(100)</b>
		$\chi^2 = 0.333$	$p = 0.847$
이민 이유	교육혜택	34(25.2)	19(18.8)
	취업의 기회	15(11.1)	6(5.9)
	부당한 대우	4(3.0)	5(5.0)
	주변사람들의 시선	2(1.5)	6(5.9)
	좋은 환경	23(17.0)	17(16.8)
	기타(문화체험, 특정국가선호 등)	22(16.3)	13(12.9)
	없음	35(25.9)	35(34.7)
	<b>합계</b>	<b>135(100)</b>	<b>101(100)</b>
		$\chi^2 = 24.797^{**}$	$p = 0.002$

\*\* $p < .0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민의사유무는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이 43%, 잘 모르겠다가 31.9%, 이민의사가 없는 사람이 25.2%이었다. 이민 이유는 교육혜택 25.2%, 미래자녀를 기르기 좋은 환경이 17%, 기타(문화 체험, 특정국가 선호 등)이 16.3%, 취업의 기회가 11.1%, 부당한 대우 3.0%, 주변사람의 시선 1.5%이었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이민의사유무는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이 43.6%, 잘 모르겠다가 28.7%, 없다가 27.7%이었다. 이민이유는 교육혜택 18.8%, 좋은 환경이 16.8%, 기타(문화 체험, 특정국가 선호 등)이 12.9%, 취업의 기회와 주변사람의 시선 5.9%, 부당한 대우 5.0%이었다.

이민의사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민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교육혜택과 취업의 기회에 대한 응답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가정에 비해 교육과 취업에 대해 기회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 관심도의 상호관련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구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의복관심	사회적승인성	의복동조	뷰티관심도
자아존중감	1	-	-	-	-	-	-	-	-
신체만족도	.521**	1	-	-	-	-	-	-	-
가족관계만족도	.432**	.364**	1	-	-	-	-	-	-
교사관계만족도	.163	.275**	.372**	1	-	-	-	-	-
친구관계만족도	.363**	.336**	.534**	.603**	1	-	-	-	-
의복관심	-.015	.283**	.094	.337**	.259**	1	-	-	-
사회적승인성	.227**	.378**	.305**	.313**	.438**	.557**	1	-	-
의복동조	-.045	.128	-.003	.278**	.179*	.312**	.438**	1	-
뷰티관심도	-.055	.135	.017	.130	.032	.559**	.241**	.168	1

\* $p < .05$ , \*\* $p < .01$

<표 44>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특히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r = .521$ )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외모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관계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 모두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친구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의복행동에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의복관심은 모든 변인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뷰티관심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뷰티관심도의 상호상관관계

구분	자아 존중감	신체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교사 관계 만족도	친구 관계 만족도	의복 관심	사회적 승인성	의복 동조	뷰티 관심도
자아존중감	1	-	-	-	-	-	-	-	-
신체만족도	.622**	1	-	-	-	-	-	-	-
가족관계 만족도	.446**	.415**	1	-	-	-	-	-	-
교사관계 만족도	.333**	.213*	.368**	1	-	-	-	-	-
친구관계 만족도	.326**	.335**	.234*	.317**	1	-	-	-	-
의복관심	.054	.075	.010	-.042	.276**	1	-	-	-
사회적 승인성	.230*	.216*	.238*	.122	.206*	.621**	1	-	-
의복동조	-.056	-.216*	.070	.184	.048	.441**	.359**	1	-
뷰티관심도	.133	-.008	.033	.001	.212*	.707**	.604**	.383**	1

\* $p < .05$ , \*\* $p < .01$

<표 45>를 살펴보면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특히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 $r=.622$ )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외모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교사관계 만족도는 의복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신체만족도는 의복의 동조와 의미있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도 의복의 동조와 부적 관계의 성향을 나타내 자아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을 수록 의복동조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차이

####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구분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가정	135	3.36	0.59	0.985	0.000**
한국가정	101	3.08	0.57		
전체	236	3.24	0.60		

\*\* $p<.01$

<표 46>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3.36)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3.08)보다 높게 나와 두 집단 간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김지혜(2009)의 연구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같은 RSEC 측정도구를 이용한 충남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백미숙, 2009)의 평균(2.87)보다도 높은 결과이다. 1년의 시간차이를 둔 조사에서 같은 지역을 포함한 백미숙의 연구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서울지역 조사대상자들이 다문화교육연구(시범)학교의 학생들로 학교에서 다양한 다문화 교육지원과 멘토링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고취시킨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구분	신체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가정	135	3.03	0.82	0.769	0.018*
한국가정	101	2.89	0.77		
전체	236	3.02	0.81		

\* $p < .05$

<표 47>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평균(3.03)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2.89)보다 높게 나와 두 집단 간의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 $p < .05$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지혜(2009)의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자아 평균(4.75)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자아 평균(4.38)보다 가 더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며, 최정미, 김미란(2003)의 연구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적 능력과 외모 영역의 자아존중감 지각이 다소 낮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200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 중의 하나로 판단되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그 특성상 신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를 스트레스적 요소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조사대상자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구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족 관계	다문화가정	135	4.02	0.73	0.019**	0.001
	한국가정	101	3.71	0.76		
	전체	246	3.89	0.75		
교사 관계	다문화가정	135	3.68	0.73	0.600**	0.001
	한국가정	101	3.36	0.71		
	전체	246	3.53	0.74		
친구 관계	다문화가정	135	3.61	3.60	0.358	0.785
	한국가정	101	3.59	0.77		
	전체	246	3.71	0.76		

\*\* $p < .01$

<표 48>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집단 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는 가족관계만족도와 교사관계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p < 0.01$ )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김지혜(2009)의 연구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친구관련 자아는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오고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최정미,

김미란(2003)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사회적 수용자와의 친구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개선을 위해 부모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시킨 교육효과와 교육과정에서 교사와의 더 많은 교류와 관심이 가족과 교사관계에 긍정적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의복행동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9>와 같다. 두 집단 간에 의복행동에 대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 모두가 의복에 대한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의복행동

구분		의복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p
의복 관심	다문화가정	135	2.85	0.85	2.599	0.867
	한국가정	101	2.87	0.96		
	전체	236	2.86	0.90		
사회적 승인성	다문화가정	135	2.87	0.84	1.404	0.394
	한국가정	101	2.96	0.79		
	전체	236	2.91	0.82		
의복 동조	다문화가정	135	2.30	0.88	0.463	0.724
	한국가정	101	2.26	0.96		
	전체	236	2.28	0.91		

(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뷰티관심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0>과 같으며, 두 집단 간에 뷰티관심도에 대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뷰티관심도

구분	뷰티관심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가정	135	2.19	0.87	0.043	0.617
한국가정	101	2.25	0.91		
전체	236	2.22	0.89		

이는 설현진, 최인려(2010)의 연구에서의 같은 문항을 통해 조사한 중학생의 평균 3.476와 고등학생의 평균 3.938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초등학생을 포함하며 청소년의 뷰티관심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설현진, 최인려(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 4)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R^2$	$\beta$	<i>t</i>	<i>p</i>
다문화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49.582**	0.000	0.272	0.521	7.041**	0.000
한국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62.570**	0.000	0.387	0.622	7.910**	0.000

\*\*  $p < .01$

<표 51>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정성이 높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 사고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주관적,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장선철, 송미현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 이경진, 윤숙경, 김석주, 정아인, 황재욱 등(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교사·친구 관계만족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교사·친구관계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의 점수를 합산한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R^2$	표준화 계수 $\beta$	계수의 유의성	
			$F$	$p$			$t$	$p$
다문화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23.816**	.000	0.152	.390	4.880**	.000
한국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33.003**	.000	0.252	.502	5.745**	.000

\*\* $p < .01$

<표 52>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은 모두 자아만족도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장명숙, 이규옥(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지혜(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변인이며, 한국가정청소년보다 또래관계에 보다 친밀하고,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i>R</i> <sup>2</sup>	$\beta$	<i>t</i>	<i>p</i>
다문화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11.554**	0.001	0.080	0.283	3.399**	0.001
	사회적승인성		22.175**	0.000	0.142	0.378	4.709**	0.000
	의복동조		2.220	0.139	0.016	0.128	1.490	0.139
한국	의복관심	신체 만족도	0.564	0.454	0.006	0.075	0.751	0.454
	사회적승인성		4.856*	0.030	0.047	0.216	2.204*	0.030
	의복동조		4.867*	0.030	0.047	-0.216	-2.206*	0.030

\**p*<.05, \*\**p*<.01

<표 53>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행동에는 정적 영향과, 의복동조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과시와 타인에게서 승인받으려는 의복행동을 보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의복에 관심을 갖고 한국가정 청소년은 개성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변인이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착용에 대해 가장 높으며, 동조성에 대하여 가장 낮았다는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R^2$	$\beta$	<i>t</i>	<i>p</i>
다문화	의복관심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11.487**	0.001	0.080	0.282	3.389**	0.001
	사회적승인성		30.144**	0.000	0.185	0.430	5.490**	0.000
	의복동조		4.736*	0.031	0.034	0.185	2.176*	0.031
한국	의복관심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1.325	0.252	0.013	0.116	1.151	0.252
	사회적 인성		7.041**	0.009	0.067	0.259	2.653**	0.009
	의복동조		1.748	0.189	0.018	0.132	1.322	0.189

\* $p < .05$ , \*\* $p < .01$

<표 54>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인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 모두에 정적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가정의 청소년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의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변인이 사회적 승인성의 의복착용에 대해 가장 높으며,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나,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변인이 동조성에 대하여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의복동조에 정적 유의한 관계를 미치는 결과는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이는 멥리선 외(2009)의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수록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의복에 대한 관심과 의복동조행동을 통해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소속되어지고, 승인받고자 하는 규범적 동조로,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의복동조성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뷰티관심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뷰티관심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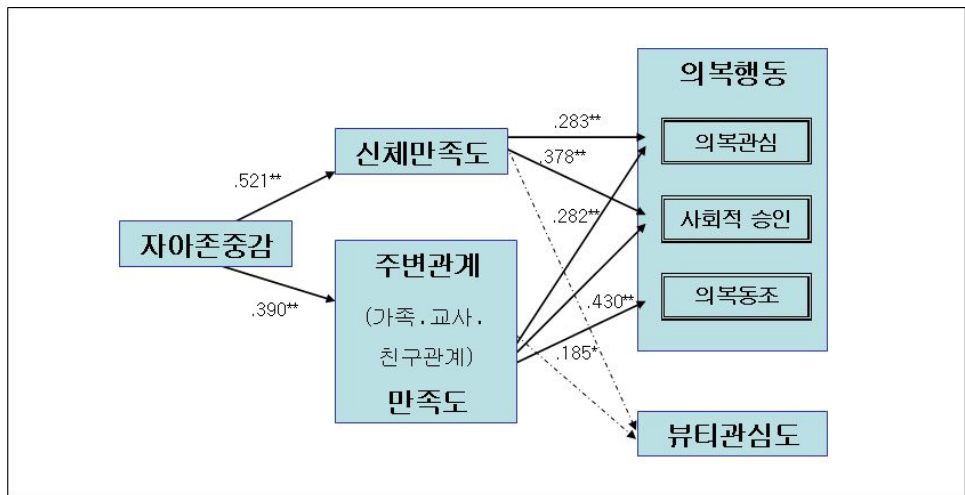
집단	종속 변수	독립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i>F</i>	<i>p</i>	$R^2$	$\beta$	<i>t</i>	<i>p</i>
다문화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2.476	.118	.018	.135	1.574	.118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	.724	.396	.005	.074	.851	.396
한국	뷰티 관심도	신체만족도	1.303	.256	.013	.115	1.142	.256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	.007	.935	0.000	-.008	-.082	.935

<표 55>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 모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와 뷰티관심도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 모두 뷰티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신체만족도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도 청소년의 낮은 뷰티관심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들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여 모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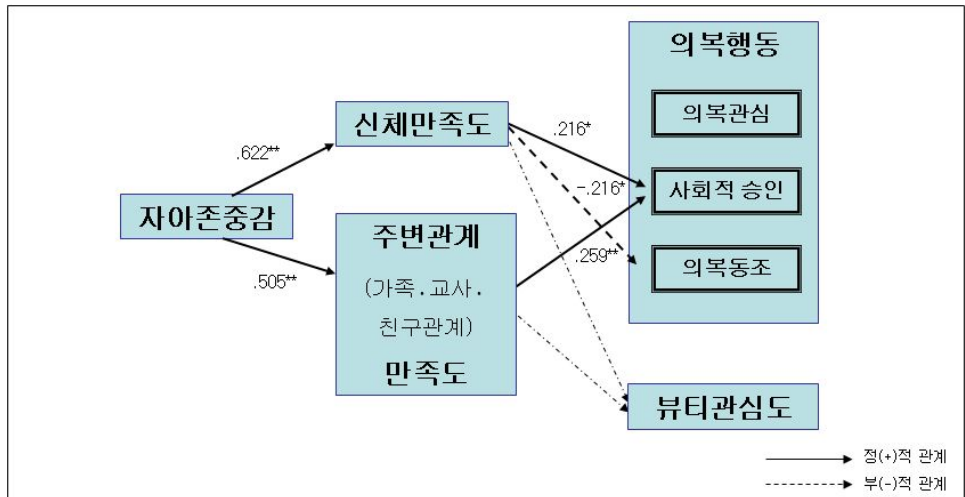


<그림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승인을 받으려는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교사·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승인을 받으려는 의복행동과 의복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지혜(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변인이며, 한국가정청소년보다 또래관계에 보다 친밀하고,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결과는 가족·교사·친구관계에 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불안수준이 동조성에 영향을 미쳐 의복의 동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12>와 같다. 한국가정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한국가정 청소년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동조행동에 부적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동조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승인을 받으려는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외모관리 일반사항에 관한 빈도분석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이유와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 유무에 따른 이유

특성	구분	빈도(%)		
		다문화 가정	한국 가정	계
외모관리 하는 이유	심리적만족감	43(31.9)	41(40.6)	84(35.6)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	38(28.1)	14(13.9)	52(22.0)
	주변사람들에게 호감주기위해	1(0.7)	1(1.0)	2(0.8)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8(5.9)	8(7.9)	16(6.8)
	이성에 호감을 주기위하여	4(3.0)	4(4.0)	8(3.4)
	강해보이기위하여	6(4.4)	2(2.0)	8(3.4)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17(12.6)	19(18.8)	36(15.3)
	기타(안한다, 그냥 등)	18(13.2)	12(11.9)	29(12.3)
	<b>합계</b>	<b>135(100)</b>	<b>101(100)</b>	<b>236(100)</b>
$\chi^2 = 10.416 \quad p = 0.237$				
외모관리 안하는 이유	더 중요한 것이 우선	32(23.7)	19(18.8)	51(21.6)
	시간이 없어서	15(11.1)	20(19.8)	35(14.8)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15(11.1)	9(8.9)	24(10.2)
	돈이 없어서	12(8.9)	12(11.9)	24(10.2)
	관심이 없어서	24(17.8)	27(26.7)	51(21.6)
	학생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22(16.3)	3(3.0)	25(10.6)
	기타(한다, 귀찮다 등)	15(11.1)	8(8.0)	23(11)
	<b>합계</b>	<b>135(100)</b>	<b>101(100)</b>	<b>236(100)</b>
$\chi^2 = 22.625^{**} \quad p = 0.002$				

\*\*  $p < .01$

외모관리의 이유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모두 심리적 만족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와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그 다음의 순위들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더 중요한 것(학업, 일, 가사 등)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관심이 없다와 학생이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청소년은 관심이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시간이 없어서와 모두 더 중요한 것(학업, 일, 가사 등)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그 다음의 순위들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평일 하루생활시간이 취침과 식사를 포함하는 개인유지시간이 초등학생 11시간 22분, 중학생 10시간 24분이며, 학습시간은 초등학생 7시간 49분, 중학생 9시간 4분이고, 이동시간은 초등학생 1시간 21분, 중학생 1시간 28분이고, 교제 및 여가 시간은 초등학생 3시간 10분, 중학생 2시간 39분이며, 주된 고민은 공부, 직업, 외모의 비중의 순서로 나타난 결과(통계청, 2009)와 상치하여, 청소년이 시간과 학업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모관리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학령기의 청소년은 학업이 외모관리보다 더욱 우선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 대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외모모방 경험대상에 대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외모평가와 외모모방 대상

특성	구분	빈도(%)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계
외모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성친구	33(24.4)	43(42.6)	76(32.2)
	이성친구	11(8.1)	28(27.7)	39(16.5)
	가족	47(34.8)	15(14.9)	62(26.3)
	전문가	6(4.4)	1(1.0)	7(3.0)
	학교 선,후배	21(15.6)	7(6.9)	28(11.9)
	선생님	15(11.1)	0(0.0)	15(6.4)
	기타(나자신, 없다 등)	2(2.2)	7(6.9)	9(3.8)
	<b>합계</b>	<b>135(100)</b>	<b>101(100)</b>	<b>236(100)</b>
$\chi^2 = 49.725^{**} \quad p = 0.000$				
외모 모방 대상	친구	15(11.1)	22(21.8)	37(15.7)
	연예인	61(45.2)	40(39.6)	101(42.8)
	가족	14(10.4)	3(3.0)	17(7.2)
	전문가	4(3.0)	-	4(1.7)
	학교 선,후배	14(10.4)	10(9.9)	24(10.2)
	선생님	2(1.5)	1(1.0)	3(1.2)
	없다	25(18.5)	25(24.8)	50(21.2)
	<b>합계</b>	<b>101(100)</b>	<b>101(100)</b>	<b>236(100)</b>
$\chi^2 = 15.907^* \quad p = 0.026$				

\*\*p<.01

<표 57>을 살펴보면 외모평가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가족을 34.8%로 가장 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성친구와 학교선후배로 답변하였으며. 한국가정의 청소년은 동성친

구를 42.6%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으며, 이성친구와 가족이 그 다음 순위들이었다. 외모모방의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모두 연예인을 가장 많이 모방하였다. 그 다음 순위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친구, 가족, 학교선후배로 나타났고, 한국가정 청소년은 친구와 학교선후배, 친구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성인과 마찬가지로 외모 평가와 외모모방의 중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있어 가족관계는 한국가정의 구성원보다 더욱 긴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3.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고찰

#### 1)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

##### (1)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구분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성인	254	3.37	0.49	.219	.826
다문화청소년	135	3.36	0.59		
다문화전체	389	3.37	0.52		

<표 58>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홍기원, 한영석(2005)의 연구에서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연령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2)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표 59>와 같다. <표 59>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성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신체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59>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구분	신체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성인	254	3.40	0.69	3.369**	.001
다문화청소년	135	3.03	0.82		
다문화전체	389	3.30	0.75		

\*\* $p < .01$

이는 이미숙(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의 연령변화에 따라 자의식과 신체만족도의 변화가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에 감소하였다가 대학교에서 다시 다소 높아진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표 28>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와 함께 해석을 하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성인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연령에 따른 자의식에 의한 신체만족도의 차이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외모적 특징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Miller, Damhorst, Michelman(1999)의 청소년 전기의 신체적 성장에 따른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하나로 안정되지 못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표 60>과 같다.

<표 60>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

구분		가족·친구관계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가족 관계	다문화성인	254	3.87	0.71	-2.019*	.044
	다문화청소년	135	4.02	0.73		
	다문화전체	389	3.92	0.72		
친구 관계	다문화성인	254	3.61	0.72	-1.568	.118
	다문화청소년	135	3.50	0.62		
	다문화전체	389	3.54	0.66		

\* $p < .05$

<표 60>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성인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명석(2005)의 연구결과에서 중학생이 성인보다 사회적만족도가 높게 나타난결

과와 유사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중 하나가 가부장적 문화를 강요하는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과 심한 가정폭력이며(다문화가족 정책 세미나, 2009), 국제결혼가족의 1/3이 남편의 독단에 의해 일방적인 가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남편이 아내의 출신국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 대해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양순미, 2006)과, 남편의 다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변미희, 강기정 2010)는 연구결과와 함께 생각되어지는 문제로 가족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언어의 습득이 빠른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어가 서투른 성인들이 가정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족들의 문화적 수용의 차이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가족지원 기본 사업의 첫번째가 한국어교육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과 의사소통과 사회적응을 돕는 가족교육이라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방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수 있다.

#### (4)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의 차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는 <표 61>과 같다. <표 61>을 살펴보면 의복행동에 있어 다문화가정 성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의복관심,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가 모두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의복행동

구분		의복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p
의복 관심	다문화성인	254	3.11	0.79	2.991**	.003
	다문화청소년	135	2.85	0.85		
	다문화전체	389	3.02	0.82		
사회적 승인성	다문화성인	254	3.08	0.71	2.580**	.010
	다문화청소년	135	2.87	0.84		
	다문화전체	389	3.00	0.76		
의복 동조	다문화성인	254	2.66	0.94	3.697**	.000
	다문화청소년	135	2.30	0.88		
	다문화전체	389	2.54	0.93		

\*\* $p < .01$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의복관심과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동조성이 높게 나타난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성인이 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인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의복행동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성인이 의복의 동조성과 함께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과 의복동조가 높다는 결과는 송경자(2009)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고, 동조성, 과시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문혜경, 유태순(2003)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유행성과 흥미성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동시에 동조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박혜선, 이은

영(1992)의 연구에서 의복에 동조가 의복에 많은 압력을 가하는 배우자 혹은 애인, 부모님 혹은 주변어른 등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규범적 의복동조가 일어난다는 결과와 <표 38>에서 다문화가정 성인의 외모평가지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과 외모모방의 대상이 가족과 주변이웃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다문화가정 성인의 의복동조는 규범적 의복동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성인의 높은 의복관심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의복의 동조행동을 통해 소속된 한국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적응을 하려는 노력이자 소속감을 느끼려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5)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에 대한 차이는 <표 62>와 같다.

<표 62> 다문화가정 성인과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뷰티관심도

구분	뷰티관심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성인	254	3.26	0.99	10.495**	.000
다문화청소년	135	2.19	0.87		
다문화전체	389	2.89	1.08		

\*\*  $p < .01$

<표 62>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성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뷰티관심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의복의 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도 높았으며, 뷰티관심도도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심이 높을 수록 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현옥, 박경애(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의복과 뷰티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탐색적 의복가치관이 높은 사람이 화장의 도구성, 유행성, 대인지각, 개성의 영향은 화장행동을 하며,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중이나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화장에 대한 행동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대인지향의 화장행동은 인지의 욕구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최수경(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가정의 뷰티관심은 의복에 대한 관심의 연장이자, 뷰티행동을 통해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과시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와 함께 소속한 사회집단에서의 안전하게 지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종류에 따른 사용실태, 섬유번호도 및 세탁방법에 대한 고찰

##### 1) 의복종류별 소유개수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의류종류별 소유개수는 <표 63>과 같다.

<표 63>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소유개수

구 분		국가 N(col.%)					합계	
		중국 (n=84)	필리핀 (n=81)	베트남 (n=33)	기타 (n=56)	한국 (n=161)		
내의	소유개수	없음	-	-	-	-	-	
		1~2벌	6(7.2)	10(12.3)	3(9.1)	2(3.6)	2(1.2)	23(5.4)
		3~5벌	23(27.4)	11(13.6)	7(21.2)	14(25.0)	17(10.6)	72(17.3)
		5벌이상	55(65.5)	60(74.1)	23(69.7)	40(71.4)	142(88.2)	320(77.1)
		$\chi^2 = 34.587^{**}$ $p = 0.001$					<b>415(100)</b>	
블라우스 (셔츠)	소유개수	없음	3(3.6)	1(1.2)	-	1(1.8)	1(0.6)	6(1.4)
		1~2벌	24(28.6)	9(11.1)	4(12.2)	11(19.7)	28(17.4)	76(18.3)
		3~5벌	31(36.9)	14(17.3)	6(18.2)	20(35.7)	58(36.0)	129(31.1)
		5벌이상	26(31.0)	57(70.4)	23(69.7)	24(42.9)	74(46.0)	204(49.2)
		$\chi^2 = 42.925^{**}$ $p = 0.000$					<b>415(100)</b>	
바지	소유개수	없음	1(1.2)	-	-	-	1(0.2)	
		1~2벌	8(9.5)	8(9.8)	3(9.1)	8(14.3)	3(1.9)	30(7.3)
		3~5벌	28(33.3)	22(27.2)	6(18.2)	17(30.4)	49(30.4)	122(29.4)
		5벌이상	47(56.0)	51(63.0)	24(72.7)	31(55.4)	109(67.7)	262(63.1)
		$\chi^2 = 24.465$ $p = 0.080$					<b>415(100)</b>	
스커트	소유개수	없음	17(20.2)	14(17.3)	1(3.0)	11(19.6)	56(34.8)	99(23.9)
		1~2벌	19(22.6)	18(22.2)	7(21.2)	11(19.6)	15(9.3)	70(16.8)
		3~5벌	24(28.6)	19(23.5)	2(6.1)	17(30.4)	41(25.5)	103(24.8)
		5벌이상	24(28.6)	30(37.0)	23(69.7)	17(30.4)	49(30.4)	143(34.5)
		$\chi^2 = 48.001^{**}$ $p = 0.000$					<b>415(100)</b>	
재킷	소유개수	없음	4(4.8)	-	-	1(1.8)	-	5(1.2)
		1~2벌	31(36.9)	18(22.2)	6(18.2)	19(33.9)	11(6.8)	85(20.5)
		3~5벌	28(33.3)	29(35.8)	6(18.2)	19(33.9)	73(45.3)	155(37.3)
		5벌이상	21(25.0)	34(42.0)	21(63.6)	17(30.4)	77(47.8)	170(41.0)
		$\chi^2 = 79.511^{**}$ $p = 0.000$					<b>415(100)</b>	

\*\* $p < .01$

<표 63>을 살펴보면 의복종류에 따른 바지의 소유개수는 모든 국가가 비슷한 개수의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내의, 블라우스(셔츠), 스커트, 재킷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으며, 블라우스는 필리핀인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다. 스커트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으며, 재킷은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다. 이는 중국인은 비교적 의복의 소유 개수가 적은 편이며, 필리핀인은 의복소유가 비교적 많고, 베트남인은 스커트를 선호한다고 보인다.

## 2) 청소년의 청바지 소유개수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청바지 소유개수는 <표 64>와 같으며,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 청바지 소유개수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청소년의 청바지 소유개수

구 분		다문화가정 (n=135)	한국가정 (n=101)	합계
소유 개수	1벌	8(5.9)	12(11.9)	20(8.5)
	2~3벌	37(27.4)	37(36.6)	74(31.4)
	3~5벌	48(35.6)	30(29.7)	78(33.1)
	5~10벌	33(24.4)	18(17.8)	51(21.6)
	10벌이상	9(6.7)	4(4.0)	13(5.5)
		$\chi^2 = 6.526$	$p = .163$	

### 3) 의복종류별 선호섬유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의복종류별 선호섬유에 대한 내용은 <표 65>와 같다.

<표 65>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선호섬유

구분			국가 N(col.%)					합계
			중국 (n=84)	필리핀 (n=81)	베트남 (n=33)	기타 (n=56)	한국 (n=161)	
내의	선호 섬유	없음	-	-	-	-	-	-
		면	42(50.0)	42(51.9)	18(54.5)	23(41.1)	83(51.6)	208(50.1)
		천연(마,모,실크)	19(22.6)	22(27.2)	3(9.1)	17(30.4)	42(26.1)	103(24.8)
		혼방(천연+합성)	21(25.0)	14(17.3)	8(24.2)	12(21.4)	29(18.0)	84(20.2)
		합성섬유	2(2.4)	3(3.7)	4(12.1)	4(7.1)	7(4.3)	20(4.8)
		$\chi^2 = 13.170$ $p = 0.357$						<b>415(100)</b>
블라우스 (셔츠)	선호 섬유	없음	3(3.6)	1(1.2)	-	1(1.8)	1(6)	6(1.4)
		면	34(40.5)	43(53.1)	3(9.1)	18(32.1)	29(18.0)	127(30.6)
		천연(마,모,실크)	28(33.3)	24(29.6)	9(27.3)	25(44.6)	85(52.8)	171(41.2)
		혼방(천연+합성)	18(21.4)	12(14.8)	19(57.6)	10(17.9)	40(24.8)	99(23.9)
		합성섬유	1(1.2)	1(1.2)	2(6.1)	2(3.6)	6(3.7)	12(2.9)
		$\chi^2 = 67.076^{**}$ $p = 0.000$						<b>415(100)</b>
바지	선호 섬유	없음	1(1.2)	-	-	-	-	1(0.2)
		면	28(33.3)	21(25.9)	-	23(41.1)	36(22.4)	108(26.0)
		천연(마,모,실크)	26(31.0)	37(45.7)	5(15.2)	18(32.1)	50(31.1)	136(32.8)
		혼방(천연+합성)	22(26.2)	19(23.5)	22(66.7)	13(23.2)	54(33.5)	130(31.3)
		합성섬유	7(8.3)	4(4.9)	6(18.2)	2(3.6)	21(13.0)	40(9.6)
		$\chi^2 = 52.910^{**}$ $p = 0.000$						<b>415(100)</b>
스카트	선호 섬유	없음	17(20.2)	14(17.3)	1(3.0)	11(19.6)	56(34.8)	99(23.9)
		면	10(11.9)	23(28.4)	-	10(17.9)	14(8.7)	57(13.7)
		천연(마,모,실크)	29(34.5)	24(29.6)	8(24.2)	23(41.1)	45(28.0)	129(31.1)
		혼방(천연+합성)	17(20.2)	14(17.3)	17(51.5)	9(16.1)	32(19.9)	89(21.4)
		합성섬유	11(13.1)	6(7.4)	7(21.2)	3(5.4)	14(8.7)	41(9.9)
		$\chi^2 = 63.282^{**}$ $p = 0.000$						<b>415(100)</b>
재킷	선호 섬유	없음	4(4.8)	-	-	1(1.8)	-	5(1.2)
		면	11(13.1)	21(25.9)	-	8(14.3)	20(12.4)	60(14.5)
		천연(마,모,실크)	36(42.9)	35(43.2)	5(15.2)	30(53.6)	69(42.9)	175(42.2)
		혼방(천연+합성)	22(26.2)	20(24.7)	16(48.5)	12(21.4)	40(24.8)	110(26.5)
		합성섬유	11(13.1)	5(6.2)	12(36.4)	5(8.9)	32(19.9)	65(15.7)
		$\chi^2 = 56.805^{**}$ $p = 0.000$						<b>415(100)</b>

\*\* $p < 0.01$

<표 65>를 살펴보면 의복의 종류에 따른 선호섬유는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선호섬유는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내의는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내의는 모든 국가가 면섬유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인은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와 재킷의 면섬유 선호가 현저히 낮고 혼방섬유를 현저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필리핀인은 블라우스(셔츠)로 면 섬유를 선호하였고, 한국인은 다문화가정보다 블라우스(셔츠)의 면섬유성호도는 낮았으나 마,모,실크 등의 천연섬유의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지, 스커트, 재킷은 필리핀인은 면섬유를 선호하고 베트남인은 혼방섬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선호섬유 이유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의류종류별 선호섬유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표 66>과 같다.

<표 66>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선호섬유에 대한 이유

구분			국가 N(col.%)					합계
			중국 (n=84)	필리핀 (n=81)	베트남 (n=33)	기타 (n=56)	한국 (n=161)	
내의	선호 이유	없음	-	-	-	-	-	-
		세탁성	7(8.3)	27(33.3)	5(15.2)	18(32.1)	58(36.0)	115(27.7)
		건강	49(58.3)	35(43.2)	11(33.3)	20(35.7)	67(41.6)	182(43.9)
		아름다움	14(16.7)	10(12.3)	13(39.4)	10(17.9)	26(16.1)	73(17.6)
		저렴한가격	14(16.7)	7(8.6)	4(12.1)	6(10.7)	7(4.3)	38(9.2)
		기타	-	2(2.5)	-	2(3.6)	3(1.9)	7(1.7)
$\chi^2 = 48.107^{**}$ $p = 0.000$							<b>415(100)</b>	
블라우스 (셔츠)	선호 이유	없음	3(3.6)	1(1.2)	-	1(1.8)	1(6)	6(1.4)
		세탁성	34(40.5)	34(42.0)	1(3.0)	12(21.4)	49(30.4)	108(26.0)
		건강	28(33.3)	24(29.6)	1(3.0)	12(21.4)	20(12.4)	81(19.5)
		아름다움	18(21.4)	15(18.5)	25(75.8)	29(51.8)	80(49.7)	180(43.4)
		저렴한가격	1(1.2)	7(8.6)	6(18.2)	2(3.6)	6(3.7)	35(8.4)
		기타	-	-	-	-	5(3.1)	5(1.2)
$\chi^2 = 88.165^{**}$ $p = 0.000$							<b>415(100)</b>	
바지	선호 이유	없음	1(1.2)	-	-	-	-	1(0.2)
		세탁성	17(20.2)	40(49.4)	9(27.3)	17(30.4)	68(42.2)	151(36.4)
		건강	21(25.0)	15(18.5)	-	14(25.0)	23(14.3)	73(17.6)
		아름다움	30(35.7)	17(21.0)	16(48.5)	21(37.5)	59(36.6)	143(34.5)
		저렴한가격	15(17.9)	8(9.9)	8(24.2)	4(7.1)	6(3.7)	41(9.9)
		기타	-	1(1.2)	-	-	5(3.1)	6(1.4)
$\chi^2 = 58.813^{**}$ $p = 0.000$							<b>415(100)</b>	
스커트	선호 이유	없음	17(20.2)	14(17.3)	1(3.0)	11(19.6)	56(34.8)	99(23.9)
		세탁성	12(14.3)	25(30.9)	3(9.1)	11(19.6)	35(21.7)	86(20.7)
		건강	13(15.5)	15(18.5)	1(3.0)	7(12.5)	7(4.3)	43(10.4)
		아름다움	36(42.9)	20(24.7)	22(66.7)	24(42.9)	61(37.9)	163(39.3)
		저렴한가격	5(6.0)	5(6.2)	6(18.2)	3(5.4)	1(6)	20(4.8)
		기타	1(1.2)	2(2.5)	-	-	1(6)	4(1.0)
$\chi^2 = 72.177^{**}$ $p = 0.000$							<b>415(100)</b>	
재킷	선호 이유	없음	4(4.8)	-	-	1(1.8)	-	5(1.2)
		세탁성	7(8.3)	28(34.6)	3(9.1)	10(17.9)	37(23.0)	85(20.5)
		건강	13(15.5)	27(33.3)	-	9(16.1)	19(11.8)	68(16.4)
		아름다움	44(52.4)	16(19.8)	22(66.7)	30(53.6)	87(54.0)	199(48.0)
		저렴한가격	16(19.0)	7(8.6)	8(24.2)	5(8.9)	11(6.8)	47(11.3)
		기타	-	3(3.7)	-	1(1.8)	7(4.3)	11(2.7)
$\chi^2 = 86.778^{**}$ $p = 0.000$							<b>415(100)</b>	

\*\* $p < .01$

<표 66>을 살펴보면 의복의 종류에 따른 선호섬유 선택이유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인과 한국인은 세탁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인은 아름다움이 중요시되었고, 중국은 건강과 저렴한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블라우스(셔츠)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 필리핀인은 세탁성과 건강이, 한국인은 아름다움이 높게 나타났다. 바지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인과 한국인은 세탁성이 높게 나타났다. 스커트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 한국인은 아름다움이, 필리핀인은 세탁성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인의 건강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재킷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은 세탁성과 건강은 높은 반면, 아름다움은 낮았으며, 한국인은 아름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베트남인은 모든 의복종류의 선호섬유에 대한 이유가 아름다움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의 풍족하지 못했던 의복이 재료의 다양화와 직조기술의 발달로 미의 기준이 강조(김혹구, 최재현, 배양수, 2001)된 문화적의 영향으로 해석되어진다.

##### 5) 의복종류별 연간 구매빈도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의류종류별 연간 구매빈도는 <표 67>과 같다.

<표 67>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연간 구매빈도

구분		국가 N(col.%)					합계	
		중국 (n=84)	필리핀 (n=81)	베트남 (n=33)	기타 (n=56)	한국 (n=161)		
내의	연간 구매 빈도	없음	-	-	-	-	-	
		1달에 한 번	2(2.4)	16(19.8)	-	11(19.6)	10(6.2)	39(9.4)
		1~2달에 한 번	11(13.1)	23(28.4)	1(3.0)	12(21.4)	26(16.1)	73(17.6)
		2~3달에 한 번	30(35.7)	19(23.5)	12(36.4)	17(30.4)	63(39.1)	141(34.0)
		6개월에 한 번	23(27.4)	20(24.7)	16(48.5)	14(25.0)	49(30.4)	122(29.4)
		1년에 1번	18(21.4)	3(3.7)	4(12.1)	2(3.6)	13(8.1)	40(9.6)
		$\chi^2 = 63.035^{**}$ $p = 0.000$						<b>415(100)</b>
블라 우스 (셔 츠)	연간 매빈 도	없음	3(3.6)	1(1.2)	-	1(1.8)	1(6)	6(1.4)
		1달에 한 번	8(9.5)	23(28.4)	-	10(17.9)	4(2.5)	45(10.8)
		1~2달에 한 번	4(4.8)	23(28.4)	1(3.0)	11(19.6)	29(18.0)	68(16.4)
		2~3달에 한 번	25(29.8)	17(21.0)	8(24.2)	15(26.8)	49(30.4)	114(27.5)
		6개월에 한 번	19(22.6)	14(17.3)	23(69.7)	13(23.2)	48(29.8)	117(28.2)
		1년에 1번	25(29.8)	3(3.7)	1(3.0)	6(10.7)	30(18.6)	65(15.7)
		$\chi^2 = 112.243^{**}$ $p = 0.000$						<b>415(100)</b>
바지	연간 구매 빈도	없음	1(1.2)	-	-	-	1(0.2)	
		1달에 한 번	7(8.3)	12(14.8)	-	8(14.3)	4(2.5)	31(7.5)
		1~2달에 한 번	7(8.3)	19(23.5)	1(3.0)	9(16.1)	16(9.9)	52(12.5)
		2~3달에 한 번	25(29.8)	22(27.2)	9(27.3)	20(35.7)	56(34.8)	132(31.8)
		6개월에 한 번	26(31.0)	22(27.2)	21(63.6)	16(28.6)	61(37.9)	146(35.2)
		1년에 1번	18(21.4)	6(7.4)	2(6.1)	3(5.4)	24(14.9)	53(12.8)
		$\chi^2 = 56.906^{**}$ $p = 0.000$						<b>415(100)</b>
스커 트	연간 매빈 도	없음	17(20.2)	14(17.3)	1(3.0)	11(19.6)	56(34.8)	99(23.9)
		1달에 한 번	6(7.1)	11(13.6)	-	6(10.7)	5(3.1)	28(6.7)
		1~2달에 한 번	8(9.5)	14(17.3)	1(3.0)	7(12.5)	4(2.5)	34(8.2)
		2~3달에 한 번	16(19.0)	14(17.3)	6(18.2)	13(23.2)	42(26.1)	91(21.9)
		6개월에 한 번	13(15.5)	21(25.9)	24(72.7)	12(21.4)	25(15.5)	95(22.9)
		1년에 1번	24(28.6)	7(8.6)	1(3.0)	7(12.5)	29(18.0)	68(16.4)
		$\chi^2 = 105.417^{**}$ $p = 0.000$						<b>415(100)</b>
재킷	연간 매빈 도	없음	4(4.8)	-	-	1(1.8)	-	5(1.2)
		1달에 한 번	6(7.1)	9(11.1)	-	4(7.1)	2(1.2)	21(5.1)
		1~2달에 한 번	1(1.2)	11(13.6)	1(3.0)	5(8.9)	7(4.3)	25(6.0)
		2~3달에 한 번	14(16.7)	12(14.8)	-	14(25.0)	43(26.7)	83(20.0)
		6개월에 한 번	21(25.0)	30(37.0)	25(75.8)	15(26.8)	64(39.8)	155(37.3)
		1년에 1번	38(45.2)	19(23.5)	7(21.2)	17(30.4)	45(28.0)	126(30.4)
		$\chi^2 = 78.100^{**}$ $p = 0.000$						<b>415(100)</b>

\*\* $p < .01$

<표 67>을 살펴보면 의복의 종류에 따른 연간 구매빈도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의 연간 구매빈도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6개월에 한 번과 1년에 1번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내의를 자주 구매하지 않으며, 필리핀의 1~2달에 한 번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연간 구매빈도는 필리핀인의 1달에 한 번과 1~2달에 한 번 구매하는 경우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표 63>에서 나타난 필리핀인의 의복의 소유개수가 많은 것과 상호연관이 있는 결과이다.

특히, 베트남인은 모든 의복종류의 연간 구매빈도가 6개월에 한 번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인 가정의 낮은 경제수준의 영향과 함께 ‘입는 것은 질긴 것’이라는 속담과 함께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수공으로 옷을 지어입고,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베트남의 오랜 의복문화(김홍구, 최재현, 배양수, 2001)와 관련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 6)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는 <표 68>과 같다.

<표 68>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

N(col.%)

구 분		다문화가정 (n=135)	한국가정 (n=101)	합계
년간 발생 빈도	1달에 한 번	36(26.7)	16(15.8)	52(22.0)
	2~3달에 한 번	69(51.1)	39(38.6)	108(45.8)
	4~5달에 한 번	15(11.1)	24(23.8)	39(16.5)
	6개월에 한 번	12(8.9)	16(15.8)	28(11.9)
	1년에 한 번	3(2.2)	6(5.9)	9(3.8)
	$\chi^2 = 15.089^{**}$ $p = 0.005$			

\*\* $p < .01$

<표 68>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는 2~3달에 한 번과 1달에 한 번으로 한국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가정 청소년의 새 옷 생기는 빈도는 4~5달에 한 번으로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은 새 옷이 생기는 빈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옷구매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문화가정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생활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자녀의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구매비용

다문화가정 국가와 한국가정의 의류종류별 1회 평균구매비용은 <표 69>와 같다.

<표 69> 조사대상자의 의복종류별 1회 평균구매비용

구분		국가 N(col.%)					합계	
		중국 (n=84)	필리핀 (n=81)	베트남 (n=33)	기타 (n=56)	한국 (n=161)		
내의	구매비용	없음	-	-	-	-	-	
		1만원 미만	15(17.9)	25(30.9)	9(27.3)	16(28.6)	8(5.0)	73(17.6)
		1~3만원	38(45.2)	39(48.1)	22(66.7)	23(41.1)	61(37.9)	183(44.1)
		3~5만원	15(17.9)	15(18.5)	2(6.1)	8(14.3)	51(31.7)	91(21.9)
		5~10만원	13(15.5)	1(1.2)	-	7(12.5)	23(14.3)	44(10.6)
		10만원 이상	3(3.6)	1(1.2)	-	2(3.6)	18(11.2)	24(5.7)
		$\chi^2 = 82.272^{**}$ $p = 0.000$					415(100)	
블라우스 (셔츠)	구매비용	없음	3(3.6)	1(1.2)	-	1(1.8)	1(6)	6(1.4)
		1만원 미만	10(11.9)	18(22.2)	4(12.1)	6(10.7)	5(3.1)	43(10.4)
		1~3만원	25(29.8)	41(50.6)	27(81.8)	22(39.3)	27(16.8)	142(34.2)
		3~5만원	23(27.4)	13(16.0)	2(6.1)	15(26.8)	53(32.9)	106(25.5)
		5~10만원	16(19.0)	8(9.9)	-	10(17.9)	54(33.5)	88(21.2)
		10만원 이상	7(8.3)	-	-	2(3.6)	21(13.0)	30(7.2)
		$\chi^2 = 119.075^{**}$ $p = 0.000$					415(100)	
바지	구매비용	없음	1(1.2)	-	-	-	-	1(0.2)
		1만원 미만	11(13.1)	16(19.8)	4(12.1)	8(14.3)	4(2.5)	43(10.4)
		1~3만원	27(32.1)	33(40.7)	27(81.8)	15(26.8)	10(6.2)	112(28.2)
		3~5만원	19(22.6)	21(25.9)	1(3.0)	21(37.5)	55(34.2)	117(28.2)
		5~10만원	14(16.7)	9(11.1)	-	10(17.9)	56(34.8)	89(21.4)
		10만원 이상	-	2(2.5)	1(3.0)	2(3.6)	36(22.4)	53(12.8)
		$\chi^2 = 153.603^{**}$ $p = 0.000$					415(100)	
스카트	구매비용	없음	17(20.2)	14(17.3)	1(3.0)	1(3.0)	56(34.8)	99(23.9)
		1만원 미만	4(4.8)	13(16.0)	2(6.1)	6(10.7)	2(1.2)	27(6.5)
		1~3만원	30(35.7)	35(43.2)	30(90.9)	19(33.9)	14(8.7)	128(30.8)
		3~5만원	18(21.4)	17(21.0)	-	11(19.6)	45(28.0)	91(21.9)
		5~10만원	13(15.5)	2(2.5)	-	8(14.3)	28(17.4)	51(12.3)
		10만원 이상	2(2.4)	-	-	1(1.8)	16(9.9)	19(4.6)
		$\chi^2 = 147.499^{**}$ $p = 0.000$					415(100)	
재킷	구매비용	없음	4(4.8)	-	-	-	-	5(1.2)
		1만원 미만	3(3.6)	9(11.1)	1(3.0)	4(7.1)	1(6)	18(4.3)
		1~3만원	18(21.4)	30(37.0)	30(90.9)	10(17.9)	4(2.5)	92(22.2)
		3~5만원	21(25.0)	25(30.9)	1(3.0)	17(30.4)	26(16.1)	90(21.7)
		5~10만원	24(28.6)	12(14.8)	1(3.0)	14(25.0)	49(30.4)	100(24.1)
		10만원 이상	14(16.7)	5(6.2)	-	10(17.9)	81(50.3)	110(26.5)
		$\chi^2 = 220.203^{**}$ $p = 0.000$					415(100)	

\*\* $p < .01$

<표 69>를 살펴보면 의복의 종류에 따른 1회 평균구매비용은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필리핀인과 베트남인은 모든 의류를 1~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재킷 외의 의류는

1~3만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나, 재킷은 5만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재킷 비용이 다른 의복종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표 63>에서 나온 재킷의 소유개수가 비교적 적었던 결과는 중국인이 재킷과 같은 외의류에 있어 수량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30>에서 나타난 중국인의 사회적 승인성과 의복동조가 높게 나온 결과와 <표 34>의 중국인의 외모만족도가 의복의 사회적승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결과로 볼때, 유혜경(1998)의 연구에서 중국소비자들이 중국 의류소비자들은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브랜드에 민감하며 고급 정장류를 지향하는 과시적 소비현상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필리핀인의 의복소유개수가 많고, 구매빈도가 빈번하며, 1회 평균 구매비용이 낮다는 조사결과는 <표 28>와 <표 30>의 결과에서 필리핀인이 외모만족도가 높고 의복관심과 사회적승인은 높지 않으나 의복동조는 높게 나온 결과와 함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자주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함께 쇼핑하는 이와 의복동조의 구매를 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한국가정의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가 다문화가정보다 많은 것은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주관적 사회계층의 분포는 비슷하였으나,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6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가정은 19.9%로 나타난 경제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려된다.

## 8) 세탁방법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류 세탁방법은 <표 70>과 같다.

<표 70> 조사대상자의 세탁방법

N(col.%)

구 분			다문화가정 (N=254)		한국가정 (N=161)	
			빈도(%)	누적%	빈도(%)	누적%
세 탁 방 법	세탁기 (가정용)	한꺼번에 한다	65(25.6)	25.6	18(11.2)	11.2
		색상구분	52(20.5)	45.1	14(8.7)	19.9
		색상·섬유구분	55(21.7)	67.7	14(8.7)	28.6
	세탁기(가정용)+ 전문 세탁소	색상·섬유구분 드라이크리닝	74(29.1)	96.9	105(65.2)	93.8
	전문 세탁소 이용		5(2.0)	98.8	10(6.2)	100
	손세탁		3(1.2)	100	0	100
	<b>합계</b>		254(100)		161(100)	

<표 70>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세탁방법은 색상·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세탁기(가정용)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여 세탁한다 74(29.1)명, 색상·섬유종류의 구분없이 한꺼번에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 65(25.6%)명, 색상·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 52(20.5%)명, 색상구분만 하여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 52(20.5%)명,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여 세탁한다 5(2.0%)명, 손세탁한다 3(1.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세탁방법은 색상·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세탁기(가정용)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여 세탁한다 105(65.2%)명, 색상·섬유종류의

구분없이 한꺼번에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 18(11.2%)명, 색상구분만 하여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와 색상·섬유 구분하여 세탁기(가정용)을 이용하여 세탁한다가 14(8.7%)명,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여 세탁한다가 10(6.2%)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은 한국가정에 비해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한국가정은 65.2%가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은 29.1%가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세탁방법의 67.7%가 가정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해석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성인과 초등학교 3학년이상부터 중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가족·교사·친구관계만족도, 의복행동 및 뷰티관심도에 대해 조사하고, 그 변인들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국가별로 규명하고, 의복사용실태와 섬유선호도 및 세탁방법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정의 국가와 한국가정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국가는 그 비율이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정 성인들의 국민소속감은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에 있어 모두 외국인이라는 지각이 가장 컸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주변인들이 한국인으로 대하여도 자신은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성인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 의복행동특성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과 의복동조, 뷰티관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필리핀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친구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만족도는 필리핀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만족도는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인, 중국인, 베트남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은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복의 동조는 베트남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인, 중국인, 한국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뷰티관심도는 필리핀인과 중국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 베트남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중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필리핀가정 성인들에 있어서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뷰티관심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베트남가정 성인의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는 뷰티관심도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국가정 성인의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가정의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신체

만족도, 주변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만족도와 교사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주변관계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신체만족도는 의복동조행동에 부적적인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보다 신체만족도,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관계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 모두의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 만족감이었으며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었다. 외모평가에 있어 다문화가정 성인은 가족을 가장 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가정은 주변이웃이었다. 외모모방의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 성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었으며, 한국가정 성인은 연예인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성인은 한국가정 성인에 비해 외모에 대한 모방과 평가의 대상으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 만족감이었으며,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었으며 한국가정 청소년은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외모평가의 중요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가족이었으며, 한국가정 청소년은 동성친구였으며, 외모모방의 대상은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모두 연예인이었다.

일곱째, 의복의 종류에 따른 사용실태와 선호섬유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의복종류에 따른 소유개수는 바지는 모든 국가가 비슷한 개수의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내의, 블라우스(셔츠), 스커트, 재킷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는 필리핀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은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중국인이 가장 적게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종류에 따른 선호섬유는 내의는 면섬유 선호가 전체의 50.1%로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베트남인은 블라우스(셔츠), 바지, 스커트, 재킷의 면 섬유 선호가 매우 낮고 혼방섬유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인과 필리핀인은 블라우스(셔츠)의 면 섬유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블라우스(셔츠) 마,모,실크 등의 천연섬유의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지, 스커트, 재킷은 면 외의 천연섬유(마, 모, 실크)와 혼방섬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종류에 따른 선호섬유 선택이유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내의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인과

한국인은 세탁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인은 아름다움이 중요시 하였고, 중국인은 건강과 저렴한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블라우스(셔츠)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 필리핀인은 세탁성과 건강이, 한국인은 아름다움이 높게 나타났다. 바지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인과 한국인은 세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커트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아름다움이, 필리핀인은 세탁성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인의 건강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재킷의 선호섬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은 세탁성과 건강은 높은 반면, 아름다움은 낮았으며, 한국인의 아름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을 중요시하였고, 베트남인은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종류에 따른 연간 구매빈도는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중국인은 모든 의류의 구매가 1년에 한번 구매하는 경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스커트와 재킷의 의복구매를 자주 하지 않으며, 필리핀인은 모든 의복구매가 1달에 한번에서 1~2달에 한번 구매하는 경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의복의 구매를 자주 있는 편으로 나타났고, 베트남인은 모든 의복의 구매가 6개월에 한번 구매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의복구매를 연간 2회 정도의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종류에 따른 1회 평균 구매비용은 모든 의복의 종류가 국가별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필리핀인과 베트남인은 모든 의류를 1~3만원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재킷 외의 의류종류는 1~3만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높으나 재킷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 청바지 소유개수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새 옷이 생기는 빈도는 한국가정 청소년 보다 자주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세탁방법은 두 집단 모두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세탁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한국가정은 65.2%가 가정용 세탁기와 전문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은 세탁법의 67.7%가 가정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한국사회에 있어 다문화적 의류시장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성인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가족·친구관계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각 국가에 따라 그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한국의 의류시장은 좀더 세분화된 시장 마케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복행동의 특성과 뷰티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그에 맞는 청소년의 이미지 메이킹 학습과 훈련을 통해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은 각 국가마다 의복종류에 대한 사용 실태, 선호섬유와 그 선택이유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세분화된 의류시

장에서는 그에 맞는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의류시장에서의 그 영향력도 증대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인 특성이 다양하므로, 그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광고전략과 판매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다문화가정 특유의 의복에 대한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생활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있어서 발전된 다문화적 의류시장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에서 균일하게 표집하지 못하였고 몇몇 곳의 특정 지역의 조사자에 편중되어 임의추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확대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인은 그 국가를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으로 세분하였으나 각 국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와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세탁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혜원. (1999).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 : 교문사.
-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2009).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15(4), 343-349.
- 강경자, 서영숙. (1992).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4), 431-441.
- 강진구.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교육연구정보, 54, 186-195.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선,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복식. 20(4), 667-681.
- 구은영, 조필교. (2001). 청소년의 의복채택 행동. 복식문화연구, 9(4), 592-601.
- 곽창렬. (2009년 10월5일). 한국 알려면 ‘외국인 洞長’ 찾으세요. 조선일보, A23.
- 권유경, 정여주. (2009).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6(2), 173-191
- 권재일, 서덕희, 서현정, 이태주, 조용환, 한건수, 한경구, 한상준, 황병하. (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파주 : 동녘.
- 권혁민. (2009).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사회 ; 이주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09, 70-77.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기연. (2007).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김경화. (2009년 8월22일).가족의 재구성 ⑬외래가족 - 주민증 가진 한국인인데 이방인 취급 서럽죠. 조선일보, A10.
- 김교정, 정규석. (2008).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272-285.
- 김나연, 이기춘. (2001). 청소년 소비자의 동조적 상표행동에 관한 연구-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53-269.
- 김덕하, 김국희. (2010). 외모관련태도에 따른 현실적 자기 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11-25.
- 김미윤. (2005).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 쟁점들, 청소년문화포럼, 12, 50-79.
- 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학회지, 30(5) , 119-135.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민정, 이경진, 윤숙경, 김석주, 정아인, 황재욱, 성영훈, 류인균.

- (2004). 여대생의 외모에 대해 타인 평가와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의학, 13(1,2), 32-36.
- 김선경, 이희선, 김종배. (1998). 유아외출복 구매자의 조성섬유 선호 집단별 차이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 1-12.
- 김수경, 한동조. (2007). 남녀 고등학생들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분석. 조형미디어학, 11(4), 39-44.
-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 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김영란. (2010).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관심 요인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6(1), 280-288.
- 김영옥, 김현미, 양민석, 윤희린, 정진주, 황정미. (2009).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서울: 집문당.
- 김은미.(2009). 다문화사회, 한국: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파주 : 나남.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우. (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방안, *오늘의 청소년*, 22(6), 10-15.
- \_\_\_\_\_. (2007).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이해. *열린세상 푸른청소년* 2007년, 71-86.
- 김정미, 이난희. (2009). 대구지역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5(4), 405-418.
- 김중호. (2005).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 : 재한국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국초등교육*, 15(2), 47-81.
- 김지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지, 이영환. (1999).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1-20.
- 김현희. (2007). 다문화복지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1, 75-92.
- 김혜수, 진병호, 박연 (2002). 한국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유망 해외 진출국으로서의 베트남/최근 진출 현황. 향후 전망과 제언. *한국의류학회지*, 26(7), 958-969.
- 김홍구, 최재현, 배양수. (2001). *동남아 인간과 문화*.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남인숙, 장혼성. (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2009 봄/여름, 7-28.

- 남행웅, 이병관, 이호열. (2009). 한국무용 참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4), 55-83.
- 노충래, 홍진.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60.
- 류세자. (2009). 미국 여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 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17(1), 28-39.
- 문정미, 김수경, 임숙자. (2006). 가족의사소통과 의복관심이 청소년의 의복구매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2), 93-103.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에 관한 연구. 복식, 53(4), 101-112.
- 박경애, 박광희. (2004). 패션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 한국의류학회지, 28(5), 678-389
- 박길순, 김서연(2002). 한국과 일본의 패션 그룹간 패션 현상 비교. 복식문화연구, 10(1), 13-27.
- 박선영. (2006). 영국의 시민교육과 다문화주의, 미래청소년학회지, 3(1), 41-68.
- 박순희, 이주희.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Resilience) 측정도구의 개발. 청소년학연구, 16(6), 103-134.
- 박정애.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1, 417-452.

- 박옥란, 박주현. (2009).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이모관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57-1266.
- 박용희. (2009). 다민족. 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박은경, 김면일. (2009).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사회 ;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적응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09, 94-102.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717-730.
- 박은희. (2008). 초등학생 5~6학년의 주관적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논집, 20(1), 1-9.
- 박중현. (2009년 8월6일).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넘었다. 조선일보, A1, A8.
- 박철웅. (2009).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117, 36-48.
- 박혜선, 이은영. (1991). 의복의 개념적 구조. 한국의류학회지, 15(3), 289-296.
- \_\_\_\_\_. (1992). 의복 동조 및 비동조의 관련 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2), 227-235.
- \_\_\_\_\_. (1994). 의복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과 준거집단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4), 490-500.
- 박혜정, 전경숙. (2004). 패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치 결정

- 요인: 물질주의와 소비자 동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9-10), 1243-1252.
- 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배은. (2006).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쟁점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7(4), 49-85.
- 백미숙.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서종남. (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6.
- 서울연광초등학교. (2010). 다문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나와 우리 바로세우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다문화 교육 연구(시범)학교 2차년도 운영보고회 자료집, 서울: 서울연광초등학교
- 설현진.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설현진, 최인려. (2010). 중,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3), 514-525.
- 송경자, 이미숙.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2), 97-110.
- \_\_\_\_\_. (2009).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10), 1611-1621.

- 송미경.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송미애.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신수연, 장은영.(2007). 중국 진출 국내 패션 브랜드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 복식문화연구. 15(3),483-495.
- 신은주. (2009). 다문화 가족의 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46(10), 20-29.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2-47.
- 심준영, 김현의. (2008). 여중고생들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화장 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4), 128-138.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_\_\_\_\_.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실태와 과제, 교육제주, 141, 142-150.
- \_\_\_\_\_. (2009).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NYPI Youth Report, 2, 4-13.

- 우룡. (2008).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3, 31-53.
- 유영식, 손호중. (2009).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447-470.
- 유진이, 홍영균. (200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3), 89-100.
- 유혜경. (1993). Fiber consumption in Korea and other regions of the world. 한국의류학회지, 17(2), 307-314.
- \_\_\_\_\_. (1998). 중국 의류소비자 특성 고찰. 복식, 22(2), 233-240.
- 윤경원, 엄재은. (2009). 다문화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9(3), 101-124.
- 윤미령. (2009).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사회 ; 결혼이주자의 이주와 적응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09, 60-69.
- 육영숙. (2008). 여대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105-115.
- 왕야, 김용숙. (2007).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45-157.
- 이경자, 이의미. (2009).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사회 ; 외국인이주와 적응과정 개관과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09, 55-59.
- 이경남, 이인자. (1986). 사춘기 여대생의 의복의 동조성, 인식도, 만족도와 가정배경 및 학급내 인기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10(1), 19-26.
- 이동영. (2009년 8월6일). 외국인 주민 100만 돌파 色다른 시대, 多  
문화한국. 동아일보, A1.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_\_\_\_\_. (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복식, 59(8), 97-109.
- \_\_\_\_\_.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  
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 이명희, 유경숙. (2004). 청소년의 의복소비행동의 지역별 비교연구.  
복식, 54(5), 13-25.
- 이무영, 강기정.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  
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  
복지학, 15(2), 29-44.
- 이미숙. (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  
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433-443.
- 이민희. (2008). 비교교육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다문화 교육 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2, 23-46.
- 이상진. (2008). 다문화가족 행동치료. 파주 : 양서원.
- 이선경, 정준교. (2003). 창의성, 개성, 동조성에 따른 고교생의 의복  
행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9), 1-16.
- 이영분, 이유경.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만족  
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63-86.

- 이옥희, 홍병숙. (1997). 섬유업체 근로여성의 작업복 실태 및 선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1-14.
- 이옥희. (2005).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추구 혜택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857-870.
- \_\_\_\_\_. (2002). 중국 남자대학생들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1), 89-101.
-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10(1), 49-58.
- \_\_\_\_\_. (2009). 다문화가정과 청소년. 신학전망. 167, 101-109.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서울 : 교문사.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 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재정, 박은경. (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 이종순.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 -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2), 384-395.
- 이창호. (2008).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6(1). 3-15.
- \_\_\_\_\_. (2009). 미국의 다문화교육, NYPI Youth Report, 2, 26-30.
- 이현옥, 구양숙. (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271-277.

- 이현옥, 박경애. (2000). 여성소비자의 외모만족도: 외모유형과 외모 의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7), 93-102.
- 이현정. (2009).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서울: 원앤원북스: 소울메이트.
- 임경복.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882-889.
- 임성택. (2008). 한국 청소년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국내전입 외국인집 단별 수용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89-206.
- 임종욱(2010)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아정체 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임희경, 최인려. (2010).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 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4), 670-686.
-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 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호, 167-185.
-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43-653.

- 전경숙, 박혜정. (2010).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의 결정변수-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지식. 복식문화연구, 18(3), 476-487.
- 전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8(3), 19-30.
- 전대근, 김세희. (2010). 친구에 대한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에 관한 연구 -위험지각, 자아존중감,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9/10), 1434-1444.
- 전대근, 이은영. (2006). 준거집단이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4), 575-587.
- 전용민, 이명희. (2005).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와 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9(9/10). 1219-1229.
- 전혜정. (1997). 동서양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3), 82-101.
- 정명석. (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87-108.
- 정미실, 강혜원. (1991).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10.
- \_\_\_\_\_. (1996).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66-75.
- 정미실, 이금실. (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 정하성. (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 다시 보는 다문화청소년, 올바른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다. 한국학술정보.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편, 파주 : 양서원.
- 조영란, 이금희. (2008).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중국 여성 복식의 변화와 그 유형에 대한 연구 -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6(5) . 891-909.
- 조윤령. (2008). 다문화사회의 청소년 :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열린세상 푸른청소년. 2008, 65-83
- 조희선, 양다진, 김세리, 이남희.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 - 취업의지 변화를 중심으로. 15(1), 123-147.
- 천문선, 이수경, 고애란. (2006). 문화성향이 의복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2), 277-300.
- 최수경. (2007). 여성의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과의 관계.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3(3), 192-202.
- \_\_\_\_\_. (2007). 화장의 동조성과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9(5), 553-562.
- 최충욱. (2008). 다문화 시대와 청소년 교육: 배타적 동화교육에서 개방적 다문화 교육에의 전환을 제안하며. 시민문화춘추, 5, 113-133.
- 최인려, 이선희.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5). 749-759.
- 채성진, 정지섭, 이인묵, 변희원. (2009년 8월13일). 다문화가정의 미

- 래 아빠 손에 달렸다 [1] 두나라 모두 아는 아이로 키우자. 조선일보, A5.
- \_\_\_\_\_. (2009년 8월14일). 다문화가정의 미래 아빠 손에 달렸다 [2] 한국문화 무조건 강조는 그만!. 조선일보, A8.
- \_\_\_\_\_. (2009년 8월15일). 다문화가정의 미래 아빠 손에 달렸다 [3] 업그레이드 위한 난산토론. 조선일보, A6.
- 통계청. (2010). 2010 청소년 통계.
- 통계청. (2009). 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요조사결과.
- 한국사회문제연구원. (2009). 다문화가족 정책세미나 자료집. 고양: (주)디프넷.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9). 보도자료 -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 한건수. (2007). 이주자가 본 이주정책.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7). 이주노동자 자녀교육을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활용. 한국교육개발, 32(1), 74-78.
- 한상숙, 김경미.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현원철. (2008).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 교육연구정보, 54, 107-116.
- 행정안전부. (2009).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홍기원, 한영석. (200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성인들의 자존감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35-156.
- 황선진, 남궁윤선, 이종남. (1998).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유

- 형과 의복행동.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1, 289-324.
- 황정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윤정. 유태순.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6), 85-95.
-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 7(4), 17-25.
- Ali, Suki. (2003). *Mixed-Race, Post-Racee: Gender, New-Ethnicities and Cultural practices*. London: Berg.
-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ron, S. J. (2001).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Wiley Periodicals, Inc.
- Bernard, J. (198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nden, N. (1990). *What is the self-estee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lf-esteem, 1st, Asker Oslo, Norway, August 9.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5783)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 W. H. Freeman.
- Cash, T. F., & Aprusinsky, T. (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The Guilford Press.
- Conner, G. H., Peters, K., & Nagasawa, R. H. (1975). Person and costume: D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2–41.
- Cox, C. L.,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w Riles*, 14, 51–58.
- Durkin, S. J., & Paxton, S. J. (2002). Predictors of vulnerability to reduced body imag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sponse to exposure to idealized female media image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aychomatic Research*, 53, 995–1005.

- Eller, Jack David. (1997). Anti-anti Multiculturalism. *American Anthropology*, 99(2), 249-256.
- Emler N. (2001). *Self-esteem :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 Frings, Gini Stephens. (2007).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8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ssion, R., & Trope, Y. (2000). Facing faces :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837-852.
- Heinberg, L. J., & Thomson, J. K.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Horn, M. J., & Gure, L. M. (1988). *The Second Skin*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원서출판 1981).
- Kaiser, S. B. (1990). *Social Psychology of Colthing: symbol appearance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 93-117.

- Levin, M. P., & Smolak, L. (1996). *Media as a contest for the development of disordered eating*. Hillsdale, NJ: Erlbaum.
- Norris, C. M. (1978).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image. Behavioral concept and Nursing Intervention*. JB: Lippincott Company.
- Phillips, A. (2007).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rs, D. (1985). *Adolescent and Youth. 5th edition*. NJ. ; Prentice-Hal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yan, M. S. (199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 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rubance and eating disorders: We' 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Schilder, P. (1975). *Disturbance of the Body Imag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ew York: Basic Biiks Inc.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Silverstein, V., Perdue, L., Peterson, B., & Kelly D. (1986). The role of mass media in promoting a thin standard of body attractiveness for women. *Sex Roles*, 14, 519–532.

Terry, T. L., & Davis, A. R.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 42, 918.

# ABSTRACT

##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Beauty Concern according to the Self-Esteem, Body Cathexis, in Multicultural Families

Kim, Taemi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Self-Esteem, Body Cathexis, Personal Relationships, Clothing Trends, Importance of Beauty, and Fabric Prefer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Method were applied to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in five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Mongolian, Vietnamese, Russian). Self-Esteem, Body Cathexis, Personal Relationships, Clothing Trends, and Importance of Beauty were examined through a five-point Likert scale. Three Factors including:

Family–Relationship, Teacher–Relationship and Friend–Relationship were used as Personal Relationship. Three Factors including Clothing Interest, Social approval and Clothing conformity were used as Clothing Trends. In addition, desires of specific Clothing and Fabric Preference were examined.

This study observed the behaviors of 651 people (Multi–cultural family adult:254,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135, Korean family adult:161, Korean family adolescent:101) in Seoul, In–Cheon, Gyeonggi, and Chungcheong.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8.0 and so the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al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acquired. Moreover the Factor analysis by Varimax Rotation, reliability, Pears'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f–Esteem, Body Cathexis, Personal Relationships, Clothing Trends, and Importance of Beauty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Korean family

adults. In regards to Self-Esteem, Philipino and Korean were the highest and Vietnamese was lowest.

Body Cathexis and Family-Relationships displayed Philipino families as the highest and Vietnamese families were lowest.

Friend-Relationships, Korean families were highest and Vietnamese families were lowest.

Social approval showed Korean families were highest and Philipino families were lowest. Clothing conformity, Vietnamese families were highest and Korean families were lowest. With respect to the Importance of Beauty, Pilipino families and Chinese families were highest and Vietnamese families were lowest.

Second, the data showed that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cted with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in bo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y adults.

In the case of Chinese families, Body Cathexi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Social approval.

In case of Philipino families,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Clothing Interest, Social approval and the Importance of Beauty.

In case of Vietnamese families,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Clothing Interests.

In c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Body Cathexi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the Importance of Beauty and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Clothing Interests and Social approval.

In the case of Korean families, Both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Clothing Interests and Social approval.

Third,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howed higher Self-Esteem, Body Cathexis, Family-Relationships, and Teacher-Relationships than Korean family adolescents.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cted with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in both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Korean family adolescents.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Clothing Interests, Social approval and Clothing conformity.

In the case of Korean family adolescents,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corrected with Social approval, while Body Cathexi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othing conformity.

Fourth, Multi-cultural family adults showed higher Body Cathexis, Clothing Interest, Social approval, Clothing conformity, and Beauty Concern th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howed higher Family-Relationships than Multi-cultural family adults.

Fift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specific Clothing and Fabrics .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lothing owned by each individual, with the exception of pants.

Koreans owned the most pairs of underwear, where as the Philipinos owned the least.

Philipinos owned more shirts/blouses and the Chinese owned the fewest number of blouses.

In regards to skirts, the Vietnamese owned the most while the Chinese and Philipinos owned the least.

The Vietnamese had the most jackets and the Chinese had the least.

The data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both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ies, cotton is the preferred fabric for underwear.

In case of the Vietnamese, a blend of natural and synthetic fibers is the preferred fabric for Blouses(shirt), Pants, Skirts

and Jackets.

With respect to the Chinese, Philipinos, and Koreans, natural fibers such as cotton, Linen, Silk, and wool were the preferred fabrics for Blouses(shirts). Natural fibers such as Linen, Silk, and wool; along with blended natural and synthetic fibers were preferred fabrics for Pants, Skirts and Jackets.

There were specific reasons for the displayed fabric preferences.

For the Chinese, health was the greatest concern that determined the fabric preference of underwear.

Beauty determined the fabric preference of Blouses(shirt), Skirts and Jackets for the Vietnamese.

The Philipinos' concern for easy-care determined their fabric preference for Pants.

There was likewise a difference in Buying Frequency.

Pilipinos Bought clothing Frequently, But the Chinese and the Vietnamese did no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verage Cost of clothing.

On average, the Philipinos and Vietnamese spent ₩1~30.000 on all types of clothing. The Chinese and Koreans

spent more for jackets.

Both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Korean family adolescents, mostly have a range of two to five pairs of jeans. But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buy new clothes more Frequently than Korean family adolescents.

Sixth, for bo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mainly laundry was a way to sort out the same colors and fabrics, and put them into the washer or dry-cleaner. Of the Korean families observed in this study, only 65.2% preferred using the washing machine at home along with the dry-cleaners, while 29.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likewise preferred using a home operated washing machine along with dry-cleaning services. Lastly, the remaining 67.7% of Multi-cultural families observed in this study preferred using only a washing machine at home.

According to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elf-esteem, Body Cathexis and personal-relationships; these are also an effect of cultural backgrounds and Environments, and therefore, make a difference in Clothing Trends, the Importance of Beauty and

preference of clothing fabric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clothing market in Korea by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relative and directive changes relevant to various clothing cultures.

## 설 문 지

---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섬유선호 및 의복행동과 뷰티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7조에 따라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뿐이며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고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최 인 려

연구자 : 박사과정 김 태 미

(e-mail: [taemik@naver.com](mailto:taemik@naver.com))

연구실 전화번호: 02-920-7197, FAX: 02-920-2074)

---

I.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느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때로 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몸매(체격)는 보기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몸무게는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얼굴은 잘생겼다 (예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키는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피부색은 보기에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외모는 보기에 좋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문항은 귀하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	1	나의 가족들은 서로를 잘 보살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가족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가족을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가족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 관계	6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보다 혼자일 때가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자신의 외모 평가** 중 누구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①동성친구 ②이성친구 ③가족 ④전문가 ⑤ 주변이웃사람들 ⑥기타( )
20. **다른 사람의 외모**를 따라해 본적이나 따라해 보고 싶은 적이 있나요?  
 ①친구 ②연예인 ③가족 ④전문가 ⑤ 주변이웃사람들 ⑥기타( )

**IV. 다음은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니 답하기 불편한 질문이더라도 솔직하게 답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 귀하가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도,특별(광역)시,           시,군,구)
4. 귀하가 한국에서의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1년미만                   ② 1-3년사이                   ③ 4-5년사이  
 ④ 5-10년사이               ⑤ 10년이상
5. 귀하가 **태어난 국가**는 어디인가요? (                   )

6. 귀하 가정의 **한 달 수입**은?

- ① 100만원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만원 이상

7.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직장인
- 8-1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의 **가정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상   ② 중   ③ 하

10. 귀하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① 한국인   ② 외국인   ③ 한국과 외국인 모두  
 ④ 한국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⑤기타(                   )

11. 주변의 **친구**와 **이웃**은 귀하를 누구로 대하나요?

- ① 한국인   ② 외국인   ③ 한국과 외국인 모두  
 ④ 한국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⑤기타(                   )

12. 앞으로 **다른국가(모국포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 ① 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13. **다른국가(모국포함)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 ① 교육의 혜택   ② 취업의 기회   ③ 부당한 대우   ④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⑤미래에 자녀를 기르기 좋은 환경이라서   ⑥기타(                   )



5) 블라우스(셔츠)를 살때 1번에 쓰는 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 ① 1만원이하            ② 1~3만원사이            ③ 3~5만원사이  
④ 5~10만원 사이      ⑤ 10만원 이상

### 3. 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가지고 있는 바지는 몇 벌입니까?

- ① 1벌    ② 2벌    ③ 3~5벌    ④ 5벌 이상

2) 귀하가 바지로 주로 구입하는 섬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면(棉cotton)    ②실크(絹Silk)            ③모(毛Wool)  
④마(麻Linen)    ⑤면+실크,모,마,레이온    ⑥면+폴리에스테르,나일론등  
⑦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나일론 등)

3) 바지로 위 섬유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세탁이 편리해서    ②건강에 좋아서    ③아름다워보이므로  
④가격이 저렴해서    ⑤기타 (                      )

4) 일년에 몇번정도 바지를 사나요?

- ① 1달에 한 벌            ② 1~2달에 한벌            ③ 2~3달에 한 벌  
④ 6개월에 한 벌        ⑤ 1년에 한벌

5) 바지를 살때 1번에 쓰는 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 ① 1만원이하            ② 1~3만원사이            ③ 3~5만원사이  
④ 5~10만원 사이      ⑤ 10만원 이상

### 4. 스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스커트는 몇 벌입니까?

- ① 1벌    ② 2벌    ③ 3~5벌    ④ 5벌 이상

2) 귀하가 스커트로 주로 구입하는 섬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면(棉cotton)    ②실크(絹Silk)            ③모(毛Wool)  
④마(麻Linen)    ⑤면+실크,모,마,레이온    ⑥면+폴리에스테르,나일론등  
⑦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나일론 등)

3) 스커트로 위 섬유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세탁이 편리해서    ②건강에 좋아서    ③아름다워보이므로  
④가격이 저렴해서    ⑤기타 (                      )

